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62
2010.05.26
gongggam.korea.kr
아, 천안함
신중하게 단호하게
Again 2002! 남아공월드컵 대표팀
일취월장!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상승
6·2 지방선거 이렇게 투표하세요
772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5월 31일~6월 11일

■ 지 급 대 상 : ①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 급 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 급 시 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 신청일 및 장소 :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사실 왜곡하지 말아야

윤덕용
KAIST 명예교수
천안함 사태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우리 조사단은 북한제 어뢰의 프로펠러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했음을 확인했다. 조사에 참여한 민과 군, 그리고 외국 전문가들 모두가 이런 사실에 동의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다. 국가를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비록 어렵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임무를 다하다 유명을 달리한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의 규명은 그 논리나 접근방법 면에서 매우 익숙한 일이었다. 즉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여러 가정을 세우고,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이를 하나하나씩 배제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진실은 분명히 있다고 믿었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데서 나의 무의식적인 선입견이라도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동안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며 깨달은 것은, 객관적 사실과 진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에게도 일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의도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론만이 옳다는 믿음 때문이다.
다행히도 천안함 조사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조사단이 밝혀낸 객관적 사실과 결정적 증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과학적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옳은 일이 아니며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과학적 진실 앞에서 겸허해야 하며,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앞에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침몰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비극을 딛고 우리 사회가 과학과 논리적인 접근을 이해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문제가 없지만,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의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활동을 했다. 우리 민군 조사단원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것이다. 그들은 사고 조사의 경험도 많았고 매우 합리적이며 논리적이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가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 파편과 부품을 찾아낸 데 대해선 크게 놀라워했다. 실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해저에서 공격무기를 찾아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끈질긴 노력으로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으며, 진실은 은폐될 수 없음을 확인해냈다.
조사단장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진해준 국내외 조사단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G

Weekly
2010.05.26
No.62(통권 163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군인, 과학자, 선박전문가, 어부에 이르기까지 민과 군, 내국인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밝혀낸 명명백백한 진실. 잔혹한 만행, 저열한 호도(糊塗), 가증스러운 적반하장에 가슴이 답답해온다. 사진 왼쪽 위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 어뢰의 잔해.

24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5.2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08

58

16

기 획 특 집

천안함 사태 진실을 말한다

46인의 젊은 장병들과 함께 서해에서 스러져간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규명됐다.
어떠한 예단도 배제하고 민(民)과 군(軍),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두 달 가까이 벌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의 결과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들의 만행을 생각하면 가슴 속엔
깊은 슬픔의 파도와 분노의 격랑이 일지만,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지금
우리 세대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01 **Reader & Leader** 윤덕용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24 '북한제 어뢰'가 천안함 때렸다
30 '스모킹 건' 확보… 민군 합동조사 빛났다
32 국제조사단이 밝힌 천안함 사태의 진실
39 **르포** 55일 만에 공개된 천안함… 현장을 가다
40 이 대통령,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41 주요 외신 "北 고의적 소행 극명해"
42 세계 각국, 천안함 사태 공동대응 적극 참여 의사 밝혀

04 **공감 라운지** 지역사랑 담은 대표문구 공모
08 **화제** 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역대 최고'
10 **6·2 지방선거** 한 번에 4명씩 두번에 나눠 꼭 투표하세요
12 **이슈** 세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천리안' 6월 발사
14 **포커스** 'FEALAC 생태관광회의' 국제 심포지엄 서울 개최
16 **포토 뉴스**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표팀 막판 담금질 현장
20 **포토 뉴스** 청와대 '소외아동돕기 바자회'

44 **문화** 박수근 45주기 기념전… 갤러리 현대에서 5월 30일까지
48 **이 사람** '글로벌 에티켓' 운동 벌이는 민병철 교수
50 **사람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21명의 여경들
52 **전시** 텍스타일 디자이너 장응복展
54 **생활 공감** 전직 지원·직무 훈련 등 정부 지원 다양
56 **정책 공감** 여성가족부 '아이 돌보미' 등 가족 지원 정책 확대
58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삼척 관동대로 수로부인길
62 **명사가 읽는 책** 〈그림과 눈물〉
63 **공감 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64 **문화 공감** 예술의전당 연극 〈벚꽃동산〉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61호(5월 19일자) 기획특집 '서민들에게 희망을'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단기간 임시직 아닌 정규직 많아졌으면

"경제는 회복세지만 고용 사정은 아직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취업이 쉽지 않고 일자리의 질도 낮은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단기간의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합니다."_이순혜

"취업난이 극심한 시점에서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취업 문제를 인식하고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리라 봅니다. 또한 이제는 정부와 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업 희망자들도 나름대로 '스펙'을 갖추고 눈높이도 낮추면서 맞춤형 취업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_woohh0419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과 복지는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능력이 부족한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겐 의료나 복지혜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치매진료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 다양한 대책이 계속해서 추진됐으면 합니다."_applejam74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금융 지원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서민금융 통합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고 새 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이런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서민지원 금융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줬으면 합니다."_김정순

61호 포커스 '2018년까지 매년 취업자 20만명 늘어난다'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결론처럼 제대로 취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로 앞으로 매년 20만명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_우향화

61호 화보 '막걸리 월드컵 16강, 전국 막걸리 한자리에'를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막걸리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인삼, 사과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결합한 막걸리가 하루빨리 많은 곳에 판매됐으면 합니다. 또 막걸리 전용 잔 공모전에 입상한 '호월배'라는 잔을 보니 막걸리를 맛깔스러우면서도 우아하게 마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 좋은 디자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_이지수

알립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편지 보내세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5월 '가정의 달'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제11회 전국 편지쓰기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부모님, 선생님, 가족 등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내용이거나 천안함 46용사를 비롯한 국군 장병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내용이다.

응모 날짜 | 6월 30일까지
응모 부문 | 초등부(1~3학년, 4~6학년 부문),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응모 방법 | A4 용지나 편지지 3장 이내로 응모 부문,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편지에 써 우편접수(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주소 | 100-686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8666호 편지쓰기 담당자 앞
수상 내역 | 전문가 심의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등 총 3백48명
입상작 발표 | 8월 13일 우정사업본부 혹은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홈페이지
시상식 날짜 | 9월 2일 서울중앙우체국

한국우편물류지원단
Tel **02-2204-1447~8 kplogis.kr**
우정사업본부 koreapost.kr

지역사랑 가득 담은 캐치프레이즈 찾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각 정부 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문구를 공모한다.

응모 내용 | **지역발전 캐치프레이즈**
– 지역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
– 양식에 맞춰(A4 1장 내외) 캐치프레이즈 제안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
응모 기간 | 6월 18일까지
응모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응모 방법 | 전자우편(region@korea.kr) 제출
시상 내용 | 대상 1명(50만원), 우수상 2명(20만원), 장려상 3명(10만원)
당첨자 발표 | 6월 21일

지역발전위원회 Tel **02-2180-2205**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region.go.kr

공감 퍼즐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6월 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국어OO, 1일OO.
4. 관측할 때 수평으로부터 관측하는 사람의 눈까지의 높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인식하는 안목의 수준. "아이들의 OOO에 맞춰서 가르쳐야 한다."
5.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 또는 그런 웃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OO금융'의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져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거두어감. 쓰레기 분리OO.
8. 고온으로 열처리한 금속 재료를 물이나 기름 속에 담가 식히는 일. 부단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세 로

2.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의 남자를 이르는 말. "OOO가 그만한 일로 울어서야 쓰겠나?"
3. 서울 및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오는 6월 2일은 OOOO를 하는 날입니다."
4.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 "그는 OOO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 금방 배운다."
6. '생김새가 탐스럽다'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하다'의 뜻을 가진 이 형용사의 어근. "OO한 꽃송이" "과일이 OO하게 담겨 있다." '우스운 이야기'라는 뜻도 있죠.
7. 물의 성질을 이르는 말이죠. 물의 온도, 맑고 흐림, 빛깔, 세균의 함유량 따위에 따라 결정되죠. OO 개선, OO 검사.

〈Weekly 공감〉 60호(5월 12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재도약 **3** 발명가 **4** 일터 **5** 집어등 **7** 살림살이
세로 1 재가 **2** 약수터 **3** 발사 **4** 일등 **6** 어버이

〈Weekly 공감〉 60호 '공감퍼즐' 당첨자
문미애 · 대전 중구 태평동
송주현 · 전북 익산시 영등동
위현숙 · 서울 양천구 목2동
이경환 · 광주 남구 노대동
이은향 · 경남 창원시 남양동

이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지면입니다. 국민들이 호소한 고충이 실사(實査)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국민 고충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국번 없이 1588-1517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고충 해결사

용감한 시민에게 박수를…

"도둑이야!"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비인 정모 씨는 주민의 외마디 비명을 듣고 냅다 달려나갔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으로 들어서자 도둑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정 씨는 그중 한 명과 부딪히면서 몸을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둑을 쫓았다. 그러나 환갑이 넘은 정 씨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도둑을 잡기에는 무리였다.

범인을 놓칠세라 정 씨가 "도둑 잡아라!" 하고 고함을 치자 그 소리를 들은 인근 중국음식점 주인과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절도범 1명을 붙잡았다. 정 씨는 이들에게서 인계받은 절도범을 지구대로 데려가 참고인 진술까지 했다. 그 일로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내심 뿌듯하기도 했지만 절도범의 보복을 우려하는 동료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고민 끝에 새 직장으로 옮긴 정 씨는 우연히 중국음식점 주인과 배달원이 절도범 검거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이 자신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직접 검거한 두 사람에게만 포상한 것이 못내 서운했던 정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씨를 만나 사건의 경위를 듣고 포상 욕심 때문에 민원을 신청했으리라는 오해를 거뒀다. 그가 몸을 사리지 않고 범인을 추격하고 경찰에 직접 범인의 도주 사실을 증언했기에 범인 검거가 가능했을 터였다. 관할 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의견을 듣고 사건 해결 과정을 재수사해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정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자리를 함께한 경찰과 시민들은 정 씨의 용감한 시민정신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끝〉 정리 · 김지영 기자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박종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1. 중점기획 기사인 '한국인의 신명 유전자를 기른다'를 눈여겨 읽었습니다. 소외계층 꿈나무들에게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니 대한민국 예술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도 많이 지원해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이번 기획특집 기사들을 읽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늪에서 여러 선진국이 아직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와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도 하루빨리 뜨거워지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미소금융이 잘 실천됐으면 합니다.
3. 나라 안팎으로 경제 상황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알뜰하고 현명한 살림을 돕는 재테크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박지영 부산 북구 화명3동

1. '석유 수입 등 20개 업종 진입규제 낮춘다' 기사를 읽으면서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주요 전략시장별로 현지 지원을 하고, 거점 확산과 연계 강화를 위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총괄체제를 갖춘다니 기대가 큽니다.
2. 기획특집 기사 중 '내 집 마련, 집값 안정 보금자리주택 인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도시 인근에 1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마련된다니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도시 서민층이나 무주택자들의 큰 소망 중 하나는 조그마한 내 집 한 채를 장만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3. 교육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선거가 6월 2일에 실시됩니다. 교육 관련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26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천암함 사태의 진실'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생활공감 국민행복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마음과 마음이 모일수록
행복한 세상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생활 속 생생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전국 1만여 명의 주부들이 마음을 모아
독거노인 자원봉사, 다문화가정 나눔봉사
장애인 돕기, 천안함 승조원 선행 이어가기 등
이웃사랑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주부의 따뜻한 마음,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www.happylife.go.kr | 주부모니터단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활동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생활공감 정책이란?
국민의 소중한 생각, 주부모니터단의 활발한 참여로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프로젝트입니다.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역대 최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2010 세계경쟁력 평가' 발표… 일본보다 4계단 위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서는 7위이며, 27위인 일본보다 높은 평가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 성과와 정부 및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 부문 평가는 지난해 45위에서 21위로 24단계나 높아졌다. 국내경제 부문이 27위에서 10위로 올랐고, 국제무역도 37위에서 22위로 개선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성황리에 개최된 수출상담회 '바이 코리아 2010'.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5월 19일 발표한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 4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조사 이후 최고 기록이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일곱 번째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8년 31위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서 2009년 27위로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한편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홍콩, 미국, 스위스,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10단계나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경제 성과 부문 지난해 45위에서 21위로 껑충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의 4대 부문에서 대부분 개선됐다. 특히 경제 성과는 지난해에는 45위였으나 올해는 21위로 24단계나 올랐다. 장기실업률(1위), 실업률

(6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8위) 등은 강점으로 꼽혔으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54위), 연구개발(R&D) 시설 재배치(53위) 등은 약점으로 평가됐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6위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재정정책이 13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신속한 재정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는 점을 IMD가 인정한 셈이다.

세부 항목에서 GDP 대비 정부 보조금(3위), 외환 보유고(6위), 사회 결집력(8위)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고,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56위), 고령화(54위) 등은 약점으로 작용했다.

기업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29위에서 2단계 오른 27위를 기록했다. 인재 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1위), 연평균 근로시간(2위) 등은 강점이나 노사관계 생산성(56위), 문화적 개방성(52위)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약점으로 꼽혔다.

"약점 지적된 교육 분야 해결 위한 노력 기울일 것"

인프라 구축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20위로 변화가 없었다. R&D 인구 대비 특허 획득건수(1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등이 강점으로 작용했고,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51위),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46위) 등은 약점이었다.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 강희민 사무관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약점으로 지적된 교육경쟁력 강화, 보건 및 환경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및 녹색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문화 개방성, 노사관계 개선, 중소기업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D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더블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함께 고려한 출구전략, 소득과 지역 격차 완화,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공포감이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IMD는 이번 평가에서 정부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같이 공개했다. 정부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즉 GDP 대비 60퍼센트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IMD는 우리나라의 2009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33퍼센트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돼야 정부 부채를 60퍼센트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동아DB

무디스, 北 리스크에도 한국 국채 신용등급 'A1'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A1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월 20일 보도했다.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은 "지난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이미 천안함 침몰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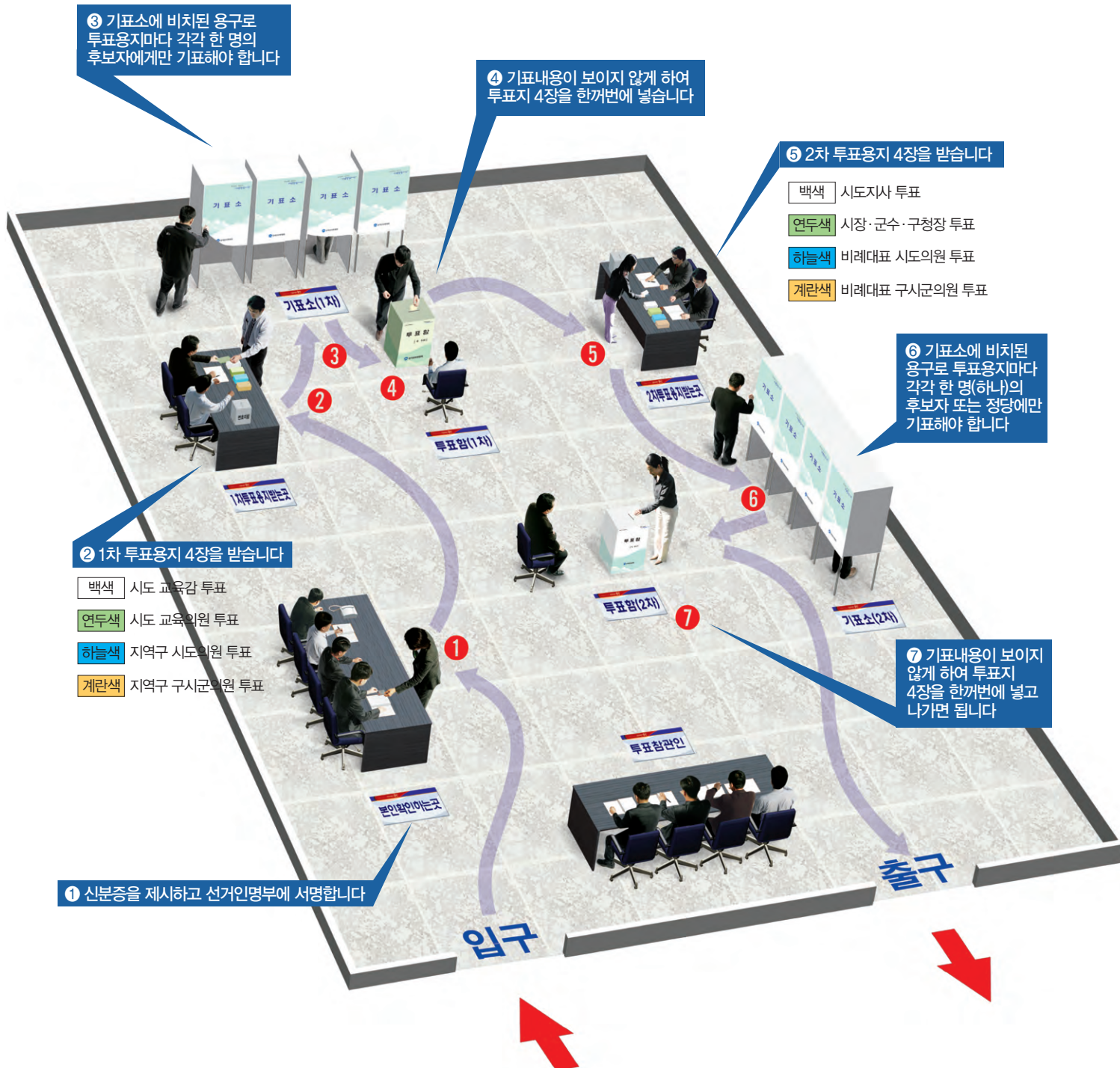
그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협력을 긴밀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A1이 양립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순위	국가	2009년	변동
1	싱가포르	3	⬆2
2	홍콩	2	–
3	미국	1	⬇2
4	스위스	4	–
5	호주	7	⬆2
6	스웨덴	6	–
7	캐나다	8	⬆1
8	대만	23	⬆15
9	노르웨이	11	⬆2
10	말레이시아	18	⬆8
11	룩셈부르크	12	⬆1
12	네덜란드	10	⬇2
13	덴마크	5	⬇8
14	오스트리아	16	⬆2
15	카타르	14	⬇1
16	독일	13	⬇3
17	이스라엘	24	⬆7
18	중국	20	⬆2
19	핀란드	9	⬇10
20	뉴질랜드	15	⬇5
21	아일랜드	19	⬇2
22	영국	21	⬇1
23	한국	27	⬆4
24	프랑스	28	⬆4
25	벨기에	22	⬇3
26	태국	26	–
27	일본	17	⬇10
28	칠레	25	⬇3
29	체코	29	–
30	아이슬란드	–	–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 번에 4명씩 두 번에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⑤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백색 시도지사 투표
연두색 시장·군수·구청장 투표
하늘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투표
계란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투표
⑥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⑦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② 1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백색 시도 교육감 투표
연두색 시도 교육의원 투표
하늘색 지역구 시도의원 투표
계란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투표
①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기표소(1차)
1차투표용지받는곳
투표함(1차)
2차투표용지받는곳
투표함(2차)
기표소(2차)
본인확인하는곳
투표참관인
입구
출구

나눠 꼭 투표하세요

유권자는 1, 2차 투표에 연달아 참여해 한 번에 4명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Q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A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꼭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A 투표에 앞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각각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정책과 투표장을 미리 확인해두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Q 어떤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먼저 만 19세 이상(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주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부재자 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기거 중인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5월 14~18일)를 거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부재자 투표일과 장소는.

A 부재자 투표는 5월 27~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부재자 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Q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어떻게 하나요.

A 지지하는 1개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Q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효표가 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1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Q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가 숫자와 가, 나, 다로 표기된 이유는.

A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경우(예 : 1–가, 1–나 / 2–가, 2–나 / 3–가, 3–나) 앞의 숫자는 정당, 뒤의 글자는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입니다.이 경우에도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세계 7번째 기상 선진국을 향한 꿈이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과 더불어 비상하고 있다.
우주로 나가는 기상시대를 열 충북 진천의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밤조차 환하다.

대한민국 하늘에 기상위성이 뜬다

세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천리안' 6월 말 발사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이 6월 말 발사된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다목적 정지궤도위성 천리안이 목표궤도에 오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기상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되면서 기상 선진국 대열에 성큼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정지궤도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이 6월 말 발사된다. 기상청 산하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목적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이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에서 6월 말쯤 발사된다고 밝혔다.

천리안보다 앞서 쿠루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던 유럽연합(EU) 위성이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됨에 따라 올해 초 예정이던 천리안 발사도 순차적으로 미뤄진 바 있다.

천리안은 2003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됐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국립기상연구소 등과 함께 프랑스 아스트리움사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천리안은 세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운영 사례로 기록된다. 현재 독자 기상위성 보유국은 미국, EU,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다.

기상관측, 해양관측, 통신중계를 위한 3개 탑재체를 보유한 천리안은 총중량 2천5백 킬로그램으로, 동경 1백28.2도 적도 상공 3만5천8백 킬로미터에서 한반도 상공을 지키며 7년간 기상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천리안이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은 속도로 정지궤도를 따라 돌게 되면 지상에서는 천리안이 한곳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천리안은 무엇보다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연속 관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천리안의 기상관측 센서는 1개의 가시광선 영역 관측 채널과 함께 4개의 적외선 영역 관측 채널을 갖고 있다. 위성의 고도와 공간해상도(적외선 4킬로미터)를 고려하면 1백 미터 전방에 있는 물체의 표면온도를 새끼 손가락 손톱 크기 단위(약 1.1센티미터×1.1센티미터)마다 섭씨 1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하는 성능이다.

천리안이 목표한 정지궤도에 진입한 뒤 6개월간의 궤도상 시험(IOT)을 거쳐 올 연말부터 정상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한반도 기상상황을 집중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일본의 정지궤도기상위성인 MTSAT-1R의 관측자료를 30분마다 받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천리안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자료를 15분마다 제공한다.

6개월간 시험 후 연말부터 정상 서비스

슈퍼컴퓨터의 수치예보 모델 운영에도 천리안의 위성자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기상예보가 좀 더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천리안 관측자료를 이용해 해수면 온도, 안개, 구름, 상층 수증기량 등 16종의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이들 자료는 기상예보와 수치예보의 입력자료, 기후변화 예측 등에 활용된다.

기상청은 이처럼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천리안의 자료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상청들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팀 원재광 사무관은 "천리안의 수명(약7년) 종료를 대비하는 후속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을 2007년부터 준비해왔다"며 "이번 천리안 발사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전병성 기상청장

"'천리안'으로 기상예보 좀 더 정확해질 것"

"다목적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의 임무 중 특히 중요한 것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상 분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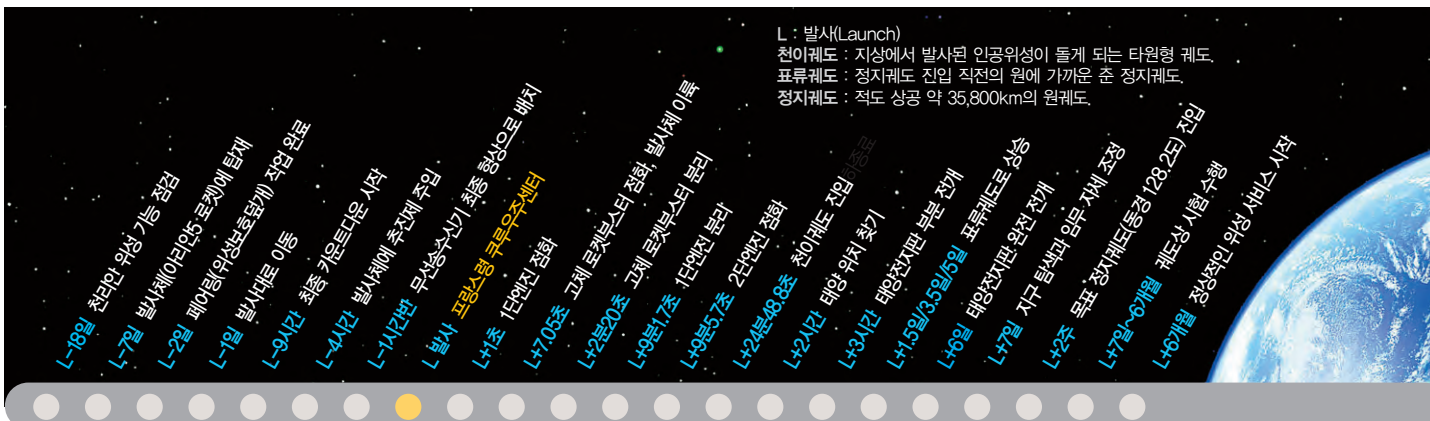
전병성 기상청장은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거친 전 청장은 2008년 7월 대통령 환경비서관에 임명됐으며, 2009년 1월부터 기상청장직을 맡아왔다.

전 청장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데다 산악지형이 많아 지상관측 시스템으로 기상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외국 위성의 자료는 상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신 자료를 받는 시간이 지체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상관측 자료를 얻기 어려운 환경이 천리안 개발의 배경이라는 것.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다가올 때 위성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어야 했습니다. 풍부한 관측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기상예보를 할 수 있는데, 30분 간격으로 한 박자 늦게 자료를 받으니 기상예측이 힘들 수밖에 없죠."

이러한 기상관측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독자적 기상위성'이었다. 전 청장은 "천리안이 수집하게 될 자료의 활용 범위를 넓히려면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성자료가 고품질을 유지해야 기상예보와 초단기예보, 기후감시 등 모든 활용 분야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오랜 기상위성 운영 경험을 가진 외국 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 청장은 "1970년 미국의 기상위성 자료를 수신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상위성 업무가 마침내 독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천리안이 발사되는 그 순간 한국의 기초과학 수준도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발사와 궤도 진입

녹색관광의 미래, 한국에서 길을 찾다

'FEALAC 생태관광회의' 국제 심포지엄 서울 개최

세계 각국의 녹색관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녹색관광 국제 심포지엄'이 5월 12일 서울에서 열렸다.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협력 포럼 '페알락(FEALAC)'의 생태관광회의와 연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생태관광 정보를 나누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교류의 장(場)이 됐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녹색관광 국제 심포지엄'에는 세계 10개국의 생태·녹색관광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후변화는 모든 산업이 동참해 현명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특히 관광산업은 환경 및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소비성향이 높아 탄소배출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 지난 5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페알락(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생태관광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생태관광회의는 곧 '녹색관광 국제 심포지엄'이기도 하다. 외교통상부는 이 회의의 서울 유치를 성사시킨 후 회의 주제가 생태관광인 점을 고려해 관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녹색관광 국제 심포지엄과 연계하기로 뜻을 모았다.

녹색관광 국제 심포지엄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녹색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지난해 처음 서울에서 열렸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 심포지엄은 세계 각국의 녹색관광 전문가들이 생태관광 성공 사례와 정보를 교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의를 뒀다.

녹색관광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

한 듯 행사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관광레저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생태관광 녹색성장을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이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 각국 생태관광 전문가 모여 발전 방향 모색

행사장을 가득 메운 회의 참가자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했다. 이날 회의에는 생태관광의 메카라 일컬어지는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에콰도르, 브라질,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10개국에서 온 생태·녹색관광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본 행사는 세계관광기구(UNWTO)의 엑토르 세바요스 라스쿠라인 특별고문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생태관광(Ecotourism)'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멕시코의 생태관광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세계 생태관광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연설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광 부문의 노력,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각국의 생태관광 성공 사례를 주제로 한 3개의 세션이 차례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최광수 사무관은 "각 지역별 생태·녹색관광 권위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내외 관광산업 현황과 미래 전망을 조망해 보고,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정책과 전략, 성공 사례 등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우리나라의 주요 생태관광지로 정평이 나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엑토르 세바요스 라스쿠라인 세계관광기구 고문

"한국, 생태관광 분야 뛰어난 잠재력 지녀"

생태관광의 창시자인 라스쿠라인 고문은 한국에 대해 "생태관광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매력적인 나라"라고 평가했다.

엑토르 세바요스 라스쿠라인 UNWTO 특별고문은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그만큼 생태관광 분야에서 권위가 높은 그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생태관광의 최근 동향 등을 알아봤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우리 문명이 위험에 처했다. 새로운 접근법이 인간 활동의 모든 양상에 적용돼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생태적 범위 안에서 살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속성의 개념은 환경과 개발이 둘 다 포함되지 않는 한 완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생태관광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생태관광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온전함을 유지하고 자연적, 문화적 자원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모든 관광의 종류를 포함하는 '우산'과도 같은 개념이다. 21세기 초부터 관광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자연을 바탕으로 한 관광(체험관광, 익스트림 스포츠, 농촌체험관광 포함)은 생태관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생태관광의 최근 국제 동향은.

생태관광은 최근 20~30년 동안 지속가능한 개발의 열쇠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발맞춰 생태적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지역들이 있다. 코스타리카, 벨리즈,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자연적, 문화적 유산이 다양하고 풍부하므로 생태관광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 한강, 설악산국립공원, 광릉숲, 낙동강 하구 등은 주요 생태관광지로 정평이 나 있다.

가자, 16강으로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표팀 막판 담금질 현장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1 "유럽·아프리카 선수들한테 밀리면 안 돼. 더 먼저, 더 높이, 더 힘차게…."
월드컵대표 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하는 도중
김정우(앞 왼쪽)와 김동진이 점프해서 가슴을 맞대고 있다.
경직된 허리와 종아리를 풀어주는 동작으로 유럽 및 아프리카 선수들과의
치열한 몸싸움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2 "월드컵에서도 이렇게 골이 잘 들어가야 될 텐데."
미드필더 김정우가 5월 12일 슈팅 연습에서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3 "코미디가 따로 없네, 킥킥…"
김남일과 박지성이 차두리 등 동료 선수들의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비장한 표정은 볼 수 없다. 과거 선배들처럼 큰 대회를 앞두고 경직되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해외파, 국내파 가릴 것 없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두려움이 없어서다. 천하의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맹주 나이지리아, 유로 2004 우승의 그리스라 해도 무서울 게 없다.

걱정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이 반가울 뿐이다. 계속 웃음이 터진다.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장난을 건다. 갈수록 재밌다. 훈련 강도가 점점 거세져도 물 한 모금에 힘든 표정이 금방 가신다. 실수를 해도 격려 박수 짝짝. 연신 터져나오는 태극전사들의 하이파이브가 고요한 파주를 5월 중순 이후 내내 들썩이게 했다.

이처럼 활기찬 팀 분위기를 살려 5월 16일 에콰도르와 붙은 국내 마지막 평가전에서 기분 좋은 2-0 완승을 거두고 출정식을 치른 대표팀이 국내파 4명을 제외한 26명(예비 엔트리 3명 포함)을 1차로 확정하고 본격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 고지'의 8분능선까지 넘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恨)을 씻어낼 기회가 4년 만에 찾아왔다. 그래서 어느 대회보다 16강에 대한 국민

적 열망은 뜨겁다.

까다로운 조 편성이지만 기대해도 좋다. 선수 구성만 놓고 봐도 설렌다. '캡틴' 박지성, 이번 시즌 유럽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인 이청용과 박주영이 버틴 미드필드와 공격 라인은 어느 강팀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

수비에선 '꾀돌이' 이영표가 버티고 있다. 여기에 '판타지스타' 안정환까지 합류했다. 이승렬, 김보경, 구자철 등 '젊은 피'들도 구색 맞추기가 아닌 차별화된 옵션을 갖춘 터라 이번 월드컵 대표팀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대 최강' 선수 구성… 일정도 유리해

일정도 우리에게 비교적 유리한 편이다. 2006년 독일 대회 첫 경기에서 가장 만만한 상대였던 토고(2-1승)와 맞붙은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첫 승리의 제물로 꼽는 그리스와 맨 먼저 격돌한다.

그리스는 조직력과 제공권, 파워가 뛰어나지만 유럽 정상권 팀에 비해선 미드필드, 수비의 세밀함과 스피드가 떨어진다. 그리스와는 이미 2007년 영국 런던에서 베스트끼리 맞대결을 펼쳐 1-0으로 승리한 적이 있기에 심리적으로도 우위에 있다.

총력을 펼쳐 그리스전에서 승리할 경우, 한층 부담을 덜어낸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할 수 있다. 더구나 아르헨티나전은 해발 1천7백53미터의 고지대에서 열린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에콰도르 등에 완패하는 등 고지대 경기에서 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메시(바르셀로나)를 필두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 아게로(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테베스(맨체스터 시티) 등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공격수들이 일단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사네티, 캄비아소(이상 인터밀란) 등 경험 많고 노련한 주력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제외된 탓에 빈틈도 엿보이는 게 아르헨티나다.

사실상 안방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나이지리아 역시 벅찬 상대다.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아프리카팀 특유의 초반 집중 공세만 잘 넘긴다면 5대 5의 짜릿한 승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많은 선수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경기력보다는 오히려 현지 적응, 부상 등의 변수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믿는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 하지 않았나.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들 웃고 있는데 복이 안 찾아올 리 없다. 꿈은 이뤄질 것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조영철 기자

1

2

1 "독일산 탱크와 스코틀랜드산 장갑차의 대결. 최후의 승자는?"
스코틀랜드 셀틱의 기성용(왼쪽)과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차두리가 어깨와 등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피지컬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2 "명색이 프리미어리거인데 사진기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아? 블루드래곤?." 이청용(오른쪽)에게 멋진 패스 주고받기를 청하는 박지성. 의도를 파악한 이청용이 큰 웃음을 터뜨렸다.

3 "이제 다 나았어요. 이상무!"
프랑스 리그에서 입은 허벅지 부상으로 정상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던 박주영이 5월 19일 대표팀 훈련에 복귀해 별 탈 없이 훈련을 마친 뒤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4 "함께 뛸 때가 생각나네."
지난해 FC서울에서 한솥밥을 먹은 이청용과 이승렬(오른쪽). 이승렬이 5월 16일 에콰도르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리자 이청용이 가장 먼저 달려가 축하해주고 있다.

5 "국민들에게 16강을 선사할 겁니다."
에콰도르전을 마친 뒤 출정식에 나선 대표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 트랙을 돌며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3

4

5

대통령의 안경·영부인의 핸드백 경매!

청와대 '소외아동돕기 바자회' 열기

지난 5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소외아동돕기 바자회'에서 김윤옥 여사가 자선 장터의 각 부스를 돌며 직접 물건을 판매했다.

지난 5월 16일 청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영빈관 앞 광장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소외아동돕기 사랑의 바자회'가 열린 것.

수익금 전액을 소외아동돕기 재원으로 기부하는 이 자선 장터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기증품을 비롯해 농수산물,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제품을 참가자 2천5백여 명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까지 착용한 안경과 넥타이 3점, 부인 김윤옥 여사는 재킷과 핸드백 3점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 내외의 기증품들은 이날 경매를 통해 50만~80만원에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고려청자, 디지털 카메라 등 비서관들이 평소 아끼던 40개의 물품도 기증돼 경매됐다.

이 행사를 주관한 김윤옥 여사는 자선 장터의 각 부스를 돌며 행사의 원활한 흐름을 이끌었다. 김 여사는 해물파전 코너에서 파전 맛있게 만드는 법에 대해 조언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직접 부친 파전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 농수산물 코너에선 명란젓과 오징어젓의 맛과 신선도를 설명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인들이 점심식사용으로 보내준 샌드위치 50개는 개당 3천원에 팔려나갔다.

김 여사는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볼 때마다 돕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겨 여러 사람들이 남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김민지 기자

1 이명박 대통령은 바자회 판매물품으로 최근까지 착용한 안경과 넥타이를 내놓았다.
2 김윤옥 여사는 해물파전 코너에서 파전 맛있게 만들기를 조언하며 직접 부친 파전도 판매했다.
3 대통령이 바자회를 찾은 사람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남아공월드컵 가서 무사히 "대~한민국" 외치려면?

The Moses Mabhida Stadium in Durban

인터넷 검색창에 해외안전여행 검색 하세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세가지 팁!

1 클릭할수록 똑똑해지는 해외여행! www.0404.go.kr

-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클릭 0404!
- ▶ 국가별 정보와 안전공지를 확인하고 여행하세요.

2 '여행경보단계' 확인은 안전한 해외여행의 첫걸음!

- ▶ 여행지 국가별 위험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유의,자제,제한,금지) 확인은 필수!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 지역은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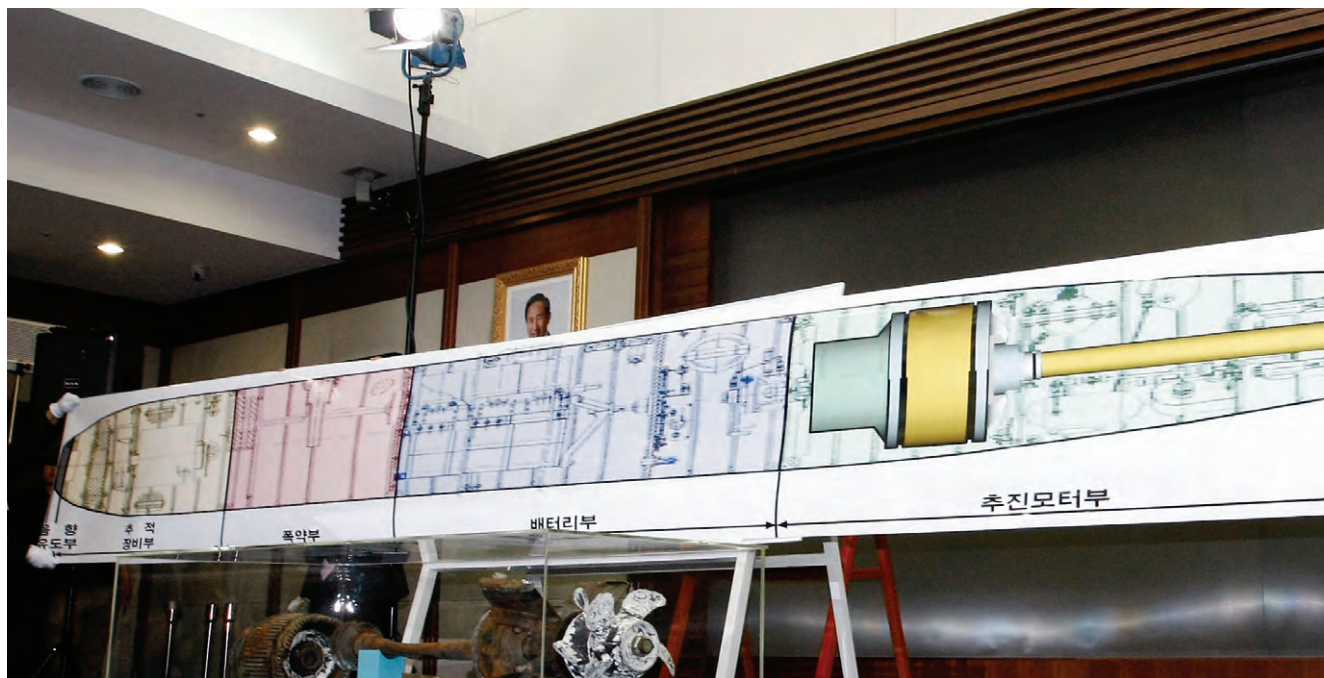
3 인터넷 등록제 '동행' 과 함께하는 안심여행!

- ▶ 여행국가의 사건사고를 대비해 '동행' 에 여행자 정보를 등록하고 출발!
- ▶ 홈페이지에서 여행정보를 '동행' 에 등록하면 목적지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기 획 특 집

“北 군사도발 응분의 대가 치를 것”

46명의 젊은 장병들과 함께 서해에서 스러져간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규명됐다.
어떠한 예단도 배제하고 민(民)과 군(軍), 국내외 전문가들이 두 달 가까이 벌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들의 만행을 생각하면 가슴속엔 깊은 슬픔과 분노의 격랑이 일지만,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지금 우리 세대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천안한 사태의 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 5월 20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발사한 북한산 중어뢰 CHT-02D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실물 크기의 CHT-02D 도면을 공개했다.

'북한제 어뢰'가 천안함

〈CHT-02D〉

젊은 장병 46인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55일 만에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6일 밤 9시 22분경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경비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한 북한제 중어뢰의 공격을 받아 강력한 수중폭발과 함께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윤덕용 공동단장의 발표를 통해 "오늘의 발표 내용은 조사단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 객관적 접근방법을 통한 조사활동과 검증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현재까지 해저에서 인양한 선체의 변형 형태와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북한이 발사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주는 '결정적 증거'로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 잔해를 공개했다.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민군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어뢰 잔해는 천안함 침몰해역을 정밀 수색하다 5월 15일 수거한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어뢰의 뒷부분인 추진동력부에 해당한다. 추진동력부에 있는 각각 5개의 날개가 달린 순회전과 역회전 프로펠러, 조종장치, 샤프트(축) 등 추진체와 함께 어뢰의 모터도 발견됐다.

천안함 폭발지점 인근 47미터 해저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 부품들은 민군 합동조사단 확인 결과 북한이

동아DB

천안함 사태 일지

날짜	내용
3월 26일	밤 9시 22분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백령도 서남방 2.5킬로미터 해상에서 침몰. 승조원 1백4명 가운데 58명 구조, 46명 실종
3월 28일	기뢰제거함 옹진함, 침몰해역에서 북쪽으로 1백80미터 지점에서 함미 부분 최종 식별
3월 30일	해군 특수전여단(UDT) 수중폭발팀 한주호 준위,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
4월 1일	군, 열상탐지장비(TOD) 화면 전체분량 공개. 천안함 침몰 당시 진도 1.5의 지진파 관측사실 공개
4월 2일	수색작업에 나선 저인망 어선 금양98호, 귀항 중 대청도 서남방 48킬로미터 해상에서 충돌사고로 침몰
4월 3일	고 남기훈 원사 시신, 천안함 함미 식당 부근에서 발견. 천안함 실종자가족협의회, 구조·수색작업 중단 요청 기자회견
4월 7일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사태 발생시각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천안함 생존장병 기자회견. 천안함 함미 절단면에서 고 김태석 원사 시신 발견
4월 15일	천안함 함미 인양. 인양 함미서 시신 36구 수습
4월 16일	민군 합동조사단, 외부폭발 가능성 발표
4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제39차 라디오연설에서 "침몰 원인 끝까지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4월 22일	함미에서 떨어져나간 연돌에서 고 박보람 중사 시신 발견
4월 24일	천안함 함수 인양. 함수 자이로실에서 고 박성균 중사 시신 발견. 고 이창기 준위 등 실종 장병 6명 산화 처리
4월 25일	천안함 46용사 장례 5일장 시작
4월 29일	천안함 46용사 해군 2함대 내 안보공원에서 영결식 엄수. 46용사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5월 3일	침몰해역에서 결정적 증거 수거를 위한 쌍끌이 어선 시험 운항
5월 10일	침몰해역에서 결정적 증거 수거작전 돌입
5월 15일	프로펠러 등 결정적 증거 발견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때렸다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어뢰의 추진체 내부에서는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발견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는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일치했다"며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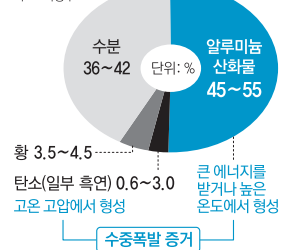
우리 군이 7년 전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에는 북한제임을 알려주는 영문 표기와 함께 '4호'라는 한글이 쓰여 있었다. 우리 군은 어뢰에 이와 다른 표기를 사용한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에 한글과 숫자를 쓴 것은 어뢰의 조립과 정비 등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어뢰 완성품은 알루미늄 외피로 싸여 있어 문제의 어뢰 내부에 한글

어뢰 잔해 '흰색 물질' 수중폭발 증거

천안함에서 발견된 흰색 흡착물질의 성분

자료: 국방부

천안함 침몰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 잔해가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맞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는 어뢰 잔해와 천안함에서 발견된 흰색 흡착물질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어뢰 잔해 2곳과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등 8곳에서 발견된 흰색 흡착물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 45~55퍼센트 ▲탄소 0.6~3.9퍼센트(일부 흑연) ▲황 3.5~4.5퍼센트 ▲수분 등 36~42퍼센트로 양쪽의 화학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비결정성 산화알루미늄은 짧은 시간에 급격한 에너지를 받거나 고온에서 급속 냉각될 때 생성되며, 수중폭발의 증거이기도 하다.

◀ 천안함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북한산 어뢰 잔해인 추진부 프로펠러에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 하얗게 점착돼 있다.
▶ 동일한 성분의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 연돌 등 천안함 곳곳에서도 발견돼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북한임을 입증했다.

이 쓰인 사실은 어뢰를 사용하는 북한군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군이 한글이 쓰인 북한의 훈련용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 항적과 음향 수동추적 방식을 사용하는 수동식 음향어뢰다. 직경 21인치(5백33밀리)에 무게 1.7톤, 길이 약 7.3미터, 폭발장약이 2백50킬로그램에 달하는 중어뢰다. 중어뢰는 무게 1~1.5톤 규모의 어뢰로 비교적 장거리를 운항한다.

민군 합동조사단 황원동 정보분석팀장은 "프로펠러 날개가 상부와 하부, 좌현과 우현 날개로 구성된 형태가 설계도면과 같고, 프로펠러부터 샤프트까지 길이가 1백12센티미터로 설계도면과 동일하며, 프로펠러 날개와 방향키의 지지원 형태와 크기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등 우리가 수거한 어뢰 잔해가 북한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했다"며 "추진부 뒷부분 안쪽의 한글 표기까지 모든 증거가 이들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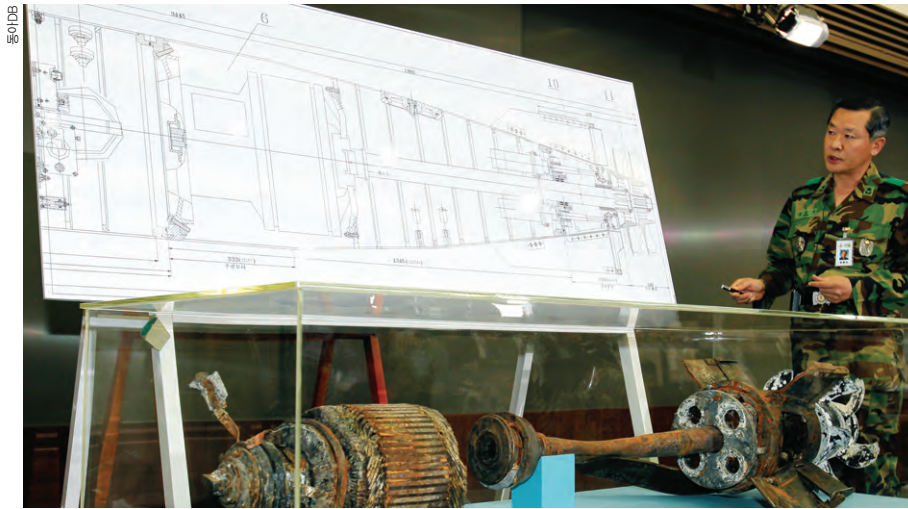
북한산 CHT-02D 어뢰 잔해 발견 전에도 천안함 사태를 어뢰 피격으로 인한 침몰로 판단할 만한 근거들은 많았다.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어뢰 피격으로 판단한 근거로 선체손상 부위에 대한 정밀계측과 분석 결과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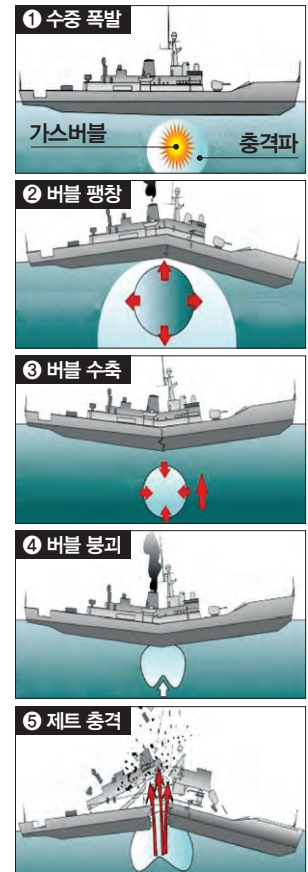
선체의 용골이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됐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함정 내외부의 표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 흔적 ▲선저 부분의 수압과 버블 흔적 ▲열 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등도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과 침몰의 원인임을 알려주고 있다

선체에는 파단된 부분이 있었다. 또 주갑판은 가스터빈실 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괴돼 절단됐고, 좌현 쪽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됐으며,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됐다. 함수, 함미의 선저(배의 바닥)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도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어뢰 추진동력부 '스모킹 건' 사고해역서 수거

함정 내외부의 표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 흔적 ▲선저 부분의 수압과 버블 흔적 ▲열 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등도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과 침몰의 원인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 민군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북한의 수출용 어뢰 카탈로그에 수록된 CHT-02D의 설계도면.
▲▲ 천안함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 잔해(유리 상자 안)와 크기와 형태가 일치한다.

버블 진행 과정

수중폭발로 인한 충격과 버블효과로 인한 물기둥 발생도 확인됐다. 천안함 생존 병사들과 백령도 해안 초병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존 병사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 2회 들었고,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또 백령도 해안 초병이 2, 3초간 높이 약 1백 미터의 백색 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 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했다고 합동조사단은 발표했다. 또한 인양된 시신을 검안한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됐는데 이는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했다.

한때 논란이 됐던 천안함 침몰 시간을 규명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진파와 공중음파가 동일 폭발원을 대상으로 기록됐고 ▲지진파는 4곳에서 진도 1.5 규모로 감지됐으며 ▲공중음파는 11곳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는 등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 현상과 일치했다. 이와 함께 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해본 결과 어뢰를 활용한 공격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덕용 공동단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부에서 제기해 온 좌초나 피로파괴, 충돌, 내부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줬다"며 "결론적으로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선체의 변형 형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과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됐다"고 정리했다.

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 수심 6~9미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미터의 위치에서 총폭발량 2백~3백 킬로미터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백50킬로그램 규모의 어뢰가 천

천안함 함수(사진 오른쪽)와 함미 사이의 절단면. 화재 흔적이 없는 전선과 위로 올라붙은 선저 등은 천안함이 수중폭발로 인한 버블제트 현상으로 침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함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미터, 수심 6~9미터 정도에서 수중폭발했고, 이에 따른 버블효과로 인해 배가 파손되며 침몰했다"고 결론지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5월 4일부터 운영해온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사실들을 근거로 천안함에 중어뢰 공격을 가한 것은 북한 잠수정이라고 확인했다.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의 조사 결과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천8백 톤급) 20여 척 ▲상어급 잠수함(3백 톤급) 40여 척 ▲연어급(1백30톤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 척 등 총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폭발량 2백~3백 킬로그램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 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 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으며, 당시 다른 주변국들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도 관측됐다.

연합정보분석TF 황원동 팀장(공군 중장)은 "북한 서해안 기지에서 상어급 잠수함과 연어급 잠수정 각각 한 척이 각 기지에서 벗어나 활동한 것이 관측됐다"며 "그동안 사용한 어뢰 종류와 작전해역 수심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한 것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유엔 군사정전委, 북한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

합동조사단은 "이러한 모든 관련 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해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됐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며 모든 증거가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군 합동조사단에는 국내 10개 전문기관과 군 전문가, 국회 추천 전문위원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를 합쳐 모두 7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미국 측 조사단 대표인 에클스 제독은 "한국 조사단원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어뢰 잔해 발견 이전에도 여러 증언과 과학적 분석, 토의를 거듭해 지금의 결론에 이르렀으며, 실제 발견된 증거는 북한산 어뢰와 크기 등이 일치했다"고 확인했다.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발표 직후 북한은 국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 피격으로 판단한 근거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Smoking Gun) | 천안함 침몰해역에서 수집한 어뢰 프로펠러,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
1. 북한의 해외수출용 어뢰 소개자료의 설계도면과 크기와 형태 일치
2. 추진모터 뒷부분 안쪽에 '1번'이란 한글 표기가 기존에 확보한 북한 어뢰의 표기와 일치

선체 손상부위 분석 | 선체의 용골과 함수, 함미의 선저가 위쪽으로 꺾이는 등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한 변형과 훼손

함정 내외부 표면 조사 |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한 압력 흔적과 선저 부분의 수압과 버블 흔적, 열 흔적이 없는 전선 절단 등

천안함 생존자와 백령도 해안 초병 진술 | 천안함 좌현 견시병 얼굴에 물이 튀고 백령도 초병이 1백 미터 높이의 백색 섬광기둥 관측

천안함 승조원 시신 검안 결과 | 파편상과 화상 흔적은 없고 골절과 열창 등 충격으로 인한 부상 발견

지진파와 공중음파 분석 | 동일 폭파원을 대상으로 지진파는 4곳에서 진도 1.5 규모로 감지, 공중음파는 11곳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 | 어뢰를 활용한 공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상황임을 확인

다국적 연합정보 분석 | 북한의 서해기지에서 운영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과 잠수정이 천안함 사태 발생 2, 3일 전 이탈했다가 2, 3일 후 복귀했고 다른 주변국 잠수함정은 자국 모기지 또는 주변에서 활동

***스모킹 건** | '연기 나는 총'이란 뜻으로 범죄 혹은 특정 행위나 현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의미.

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5월 21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주도의 다국적 합동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조사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유엔사의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CIT)을 소집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등으로 구성되며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 스위스의 요원들도 포함된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북한제 어뢰'에 조사단 전원 동의"

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오늘 발표한 사실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외국 조사단까지 모두 견해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이날 천안함 사태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단이 구성돼 단계별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모든 분과에서 외국 조사단원들이 참여해 토의를 통해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제 어뢰라는 마지막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조사단원 전원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인 윤덕용 공동단장과 함께 민군 합동조사단을 이끌어온 박 단장은 그동안 관심이 집중돼온 천안함 폐쇄회로TV(CCTV)를 복원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천안함 내외부에 설치된 CCTV는 한 달 정도 바닷속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복원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모두 11개의 천안함 CCTV 가운데 6개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복원됐으나 안타깝게도 폭발 1분 전까지의 상황만 복원됐다. 이는 화면에 잡히고 나서 1분 후 서버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복원된 영상은 평시 상황에서 순찰하는 모습, 가스터빈실이 정상 가동되는 모습, 승조원 3명이 후타실에서 운동하는 모습 등으로 이를 통해 천안함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 중 갑작스런 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박 단장은 "CCTV 영상의 공개 여부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후에 비공개로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천안함 사태 원인이 북한제 중어뢰의 공격임을 밝힌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직후 북한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단장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상태에 있다"며 "정전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유엔정전위원회가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의에 대해)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끌이 어선 동원해 바다 밑 샅샅이

'스모킹 건' 확보… 민군 합동조사 빛났다

〈Smoking Gun : 결정적 증거〉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증거를 찾은 것은 과학적 노력과 민군의 협력이 일궈낸 성과다. 예단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민군의 열성이 더해져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과학적 분석작업을 통해 다각도로 사고 원인을 분석한 민군 합동조사단과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쌍끌이 어선의 합작품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수사 ▲폭발유형 분석 ▲선체구조 관리 ▲정보 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벌였다.

먼저 이들은 침몰해역에서 선체의 변형 형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시신 검안 결과, 지진파와 공중음파 분석 결과, 수중 폭발 시뮬레이션,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 등을 통해 천안함 사태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그런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어뢰를 발사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했다.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를 찾기로 한 합동조사단은 5월 5일부터 폭발 원점을 중심으로 가로 5백 야드(약 4백57미터), 세로 5백 야드 해역을 25개 격자로 나누고 1백35톤 규모의 쌍끌이 어선 두 척을 동원해 정밀 수거작업을 수행했다.

쌍끌이 어선을 동원하기로 한 것은 2006년, 2007년 공군기 바다 추락사고 때 쌍끌이 어선을 활용해 바닷속에서 기체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가한 외국 전문가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잔해를 수거한 공군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사고해역 수색작업을 위해 4월 21일부터 그물코 5밀리미터, 폭 25미터, 높이 15미터, 길이 60미터, 무게 5톤의 특수 그물을 제작했다.

5월 3일 시험적으로 쌍끌이 어선의 수거작업을 해본 뒤 5일부터 정밀 수거작업에 들어가 열흘 만인 15일 오전 9시 25분경 폭발해역 주변 47미터 수심에서 프로펠러가 달린 어뢰의 추진부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쌍끌이 어선이 '스모킹 건'을 찾아낸 뒤에는 조사작업에 참여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이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카탈로그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또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를 확인해 쌍끌이 어선이 건져올린 어뢰의 추진부가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는 데 가장 신중했던 스웨덴 조사단원들도 증거들이 모아지자 북한의 소행이란 결론에 동의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사진 · 조영철 기자

쌍끌이 어선 대평 11호 김남식 선장

"그물에 걸려나오는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죠"

"무기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프로펠러를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는 '스모킹 건'을 찾아낸 부산 대평수산 소속 쌍끌이어선 대평 11호의 김남식(48) 선장은 "뭘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며 "천운이 따랐다"고 말했다. 올해로 선원 경력 30년째인 김 선장은 "더구나 한 개도 아니고, 프로펠러가 달린 조종장치와 모터를 한꺼번에 건져올렸다"며 "이는 두 개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5월 5일부터 천안함 침몰해역에서 천안함 사태 원인이 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대평 12호까지 두 척의 쌍끌이 배를 지휘해온 김 선장은 조류의 속도가 완만해지는 정조시간에 맞춰 하루 2~4번밖에 할 수 없는 투망작업을 하루 8번까지도 해내는 초인적인 의지를 보였다.

김 선장이 이번 일을 맡은 것은 공군의 '추천' 때문이었다. 김 선장은 2006년 독도 인근, 2007년 어청도 인근 공군기 추락사고 때도 블랙박스와 주요 부품 등을 공군이 '바라는 만큼' 수거했다고 한다. 김 선장이 동해에서 수색작업을 벌인 곳은 3백70미터 깊이의 해저였으며, 어청도 해역은 45미터 깊이였다.

더구나 이번 작업처럼 해저를 일정 구역으로 나눠 샅샅이 뒤지는 '해저 수색'에는 조류를 뚫고 목표지점을 향해 정확하게 투망하기 위해 좀 더 정교한 노하우가 필요했다. 힘든 작업에 애써 만든 특수그물망이 두 차례나 찢어지기도 했다.

김 선장은 "때로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구상하는 계획이 나의 오랜 바다 경험과 다를 때도 있었지만,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증거를 찾자는 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간을 아껴가며 작업을 했다"면서 "결정적 증거가 바다에서 올라올 때는 선원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고 전했다.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장에서 '결정적 증거' 발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대평 11호 김남식 선장.

국제조사단이 밝힌 천안함 사태의 진실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억측들이 아직도 인터넷과 일부 언론을 통해 나돌고 있다. 우리 군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인 데다 각종 추측성 보도와 루머들이 양산되면서 많은 유언비어를 만들어냈다. 시시비비를 가려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천안함과 함께 서해에서 스러져간 젊은 장병들을 예우하는 길이다. 천안함 사태 관련 의문점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과 해군본부의 답변을 들어봤다.

동아DB

Q 북한 잠수정은 어떤 경로로 침입했다가 도주했나.

A 북한 잠수정의 침투와 도발 경로는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은밀하게 공격하기 위해 수중으로 서해 외곽을 우회 침투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인 천안함에 근접해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일단 도발한 뒤에는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 침투 경로를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Q 이러한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 방어 보강을 위한 조치를 취했나.

A 잠수함에 대한 방어대책은 대단히 어렵다. 현재 가장 용이한 대응은 잠수함이 기지에 정박해 있을 때 식별하는 것이다. 일단 **수중으로 잠항하기 시작하면 세계 어느 나라의 과학기술로도 분명하게 추적하는 것이 제한**되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도 북한 잠수함과 잠수정의 기지 이탈은 식별했지만, 우리 영해까지 침범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해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앞으로 취약 수중에 다양한 잠수함 탐지체계들을 구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Q 과거 동해로 침투한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도 20여 차례 우리 영해를 침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북한 잠수정이 단번에 천안함을 공격했겠나. 사전 침투한 것은 아닌가.

A 현재로선 북한이 사전에 도발 지역을 정찰했다는 정보는 없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해역과 유사한 북한의 해저에서 사전 훈련을 했다고는 판단**하고 있다.

Q 북한이 정말로 수출 카탈로그에 어뢰 설계도를 실었나.

A 북한 어뢰 CHT-02D 팸플릿은 보안상 출처를 소상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팸플릿에는 **어뢰의 제원, 특성, 상세 설계도면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Q 소형 연어급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나.

A 북한이 해외 수출용으로 건조한 1백30톤의 연어급 잠수정은 보통 경어뢰(길이 2.9미터, 무게 2백80~3백 킬로그램, 지름 12.7인치)를 2발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잠수정 외부에 발사관을 부착하면 충분히 중어뢰(길이 7.5미터, 무게 1.7톤, 지름 21인치)를 발사**할 수 있다. 우리 해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Q 추진기 프로펠러와 구동축 사이에 파란색으로 '1번'이라고 쓰여 있어 북한제 어뢰로 추정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북한제로 볼 수 있나.

A 어뢰의 종류에 따라 어뢰 내부에 사용되는 부품은 모두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뢰 조립과 정비,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식별하기 쉽도록 그 부위에 '1번'이라고 쓴 것으로 보인다. 어뢰 완성품은 알루미늄 외피로 둘러싸여 있어 이 어뢰를 사용하는 북한군은 내부에 글씨가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다른 나라 어뢰는 한글로 '1번'이라고 쓰지 않는다. **과거 발견된 북한의 훈련용 어뢰에도 '4호'라고 쓰인 한글 표시**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제 어뢰라는 증거가 된다.

필적 감정은 글씨가 같거나 적어도 같은 자·모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1번'만으로는 과거 북한의 훈련용 어뢰에 쓰인 글씨와 대조해 필적 감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글씨를 쓰는 데 사용한 잉크는 장시간에 걸쳐 분석하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분 검사를 하고 있다.

Q 프로펠러 등에 있는 붉은 색상은 무엇인가. 천안함 사태 이전부터 물속에 있어 오래 부식돼 생긴 것은 아닌가.

A **추진체 중 강철 부위가 부식된 정도는 천안함 함수가 부식된 정도와 비슷했다.** 천안함 함수는 약 한 달 동안 해저에 있었고, 추진체 프로펠러 등은 한 달 반가량 해저에 있어 강철의 부식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철의 부식 정도와 화약에서 나온 알루미늄의 산화 정도를 보아 천안함 폭발 순간 함께 해저에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추진체 부위 중 스테인리스강은 전혀 부식되지 않았다.

침몰해역에서 발견된 추진체 프로펠러 등에 묻은 흰 물질은 철의 부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화약에서 나온 알루미늄 성분이 폭발하면서 생긴 흡착물질**이다. 흡착물질의 성분은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이러한 알루미늄 산화물은 고온, 고압에서 생성되며 수중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다. 최근 들어 어뢰에 사용되는 폭약 가운데 알루미늄 파우더가 20~30퍼센트 포함되며, 특히 버블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알루미늄 흡착물은 프로펠러뿐 아니라 추진체 속 강철에도 부착돼 있었다.

Q 과연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물증'을 남겼을까.

A '결정적인 물증'은 어뢰 가장 뒷부분인 추진 동력부에 해당한다. 구동축과 프로펠러 등은 폭약이 실린 어뢰 앞부분과 반대쪽에 있어 어뢰가 수중에서 어떤 각도와 방향으로 터지느냐에 따라 물증이 남을 수 있다.

Q 물기둥이 솟았다는 사실이 왜 처음에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나.

A 그동안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때 물기둥이 발생한 근거는 4가지다. 첫째, 백령도 초병이 해상에서 높이 1백 미터, 폭 20~30미터의 하얀 섬광기둥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둘째, 천안함의 좌현 견시병이 폭발과 동시에 넘어지며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셋째, 천안함 생존 병사들이 탈출할 때 좌현 외벽 부분의 현창과 같은 곳에 물이 고여 발목이 물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넷째, 폭약이 폭발한 잔재들이 함수 포탑에서 함미 포탑에 이르기까지 천안함 전 부분에서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는 폭발 순간 물기둥이 치솟으며 천안함 위로 퍼졌다는 증거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할 때 물기둥이 발생한 결과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Q 민군 합동조사단이 시뮬레이션이나 폭발실험을 통해 함정이 천안함처럼 절단되는지 결과를 도출했나.

A 한순간에 두 동강 난 천안함과 가까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절단 부위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30가지 조건을 입력해 계산한 결과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미터, 수심 6~9미터에서 고성능 폭약 2백50킬로그램 규모의 폭발이 있을 때 천안함과 같은 변형을 일으킨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 폭발 규모를 입력한 선체의 손상 시뮬레이션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선체의 폭발이 어떤 식으로 파괴와 침몰로 이어지는지 공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지금까지의 계산만으로도 충분히 천안함 침몰을 설명할 수 있었다.

Q 천안함 사태 발생 시간을 의도적으로 숨겼나.

A 사건 초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은폐할 이유는 없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해 맨 처음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유선전화로 보고받은 시간인 3월 26일 '밤 9시 45분'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후 국회 보고와 언론 발표 때 천안함 포술장이 휴대전화로 2함대사령부에 보고한 시간인 '밤 9시 30분'으로 정정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은 '밤 9시 22분쯤'으로 최종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화면상 천안함의 자함신호는 밤 9시 21분 57초에 중단됐으며, 백령도 지진파 관측소는 밤 9시 21분 58초에 지진파를 감지했다. 또 천안함 국제상선망 교신시간은 밤 9시 19분 30초~20분 3초였고, 해병6여단 경계근무자 관측 결과 밤 9시 22분 해상 소음을 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Q 천안함이 백령도 연안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한 것은 아닌가.

A 천안함은 지시받은 작전구역에서 정상적으로 기동하고 있었다. 경비함은 지시받은 경비구역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비구역 내에서는 함장이 판단해 움직인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천안함은 2함대사령부 지침(2009년 11월 24일자)에 따라 백령도 서남방 지역 경비를 맡았으며, 활동 수역은 암초가 있는 백령도 남방지역으로부터 9, 1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이었다. 특히 천안함 함장은 부임 후 사건 발생지역에서 16회 임무를 수행해 지리에 익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천안함의 위치는 수심 24미터로 안전상 문제가 없었고,** 사건 발생 전 백령도 남방 2.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북서방향 6.3노트로 정상 기동 중이었다. 천안함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2함대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이었다.

Q 후타실에 침수 등 비상상황이 있었나.

A 후타실은 함정의 가장 후미에 있으며, 배의 방향을 잡는 조타장치가 있는 곳이다. 비교적 넓은 곳으로, 평소 헬스 자전거 2대, 윗몸일으키기용 받침대 2개, 역기 4개 등이 비치돼 운동 공간으로 사용됐다. 후타실에서 시신 3구가 나온 것도 조타장치 이상 때문이 아니라 운동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침수로 인한 비상상황이라면 비상시 위치가 후타실인 부함장이 후타실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함장은 침실에서 구조됐다. 그리고 복원된 천안함 폐쇄회로 화면에서도 병사 3명이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DB

실종된 천안함 수색과 승조원 구조에 나선 해군 구조대원들.

Q 열상감시장비(TOD)는 항상 녹화상태가 아닌가.

A 주야간 탐지장비인 TOD는 특정 방위를 지향해 설치돼 있으며, 버튼을 눌러야 녹화된다. 백령도 해병대 초소에서 초병이 3월 26일 밤 "꽝"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방향으로 TOD 방향을 바꿨으나 **버튼을 늦게 눌러 폭발 내지 충격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밤 9시 22분 40초부터 함수 부위를 녹화한 장면만 확인됐다.

이후 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상급 부대인 6여단에 위치해 있는 영상체계를 점검하던 중 녹화된 ▲천안함 정상기동 장면(밤 9시02 분 26초부터 3초간) ▲함수, 함미가 분리된 장면(밤 9시 22분 38초부터 1분 1초간) ▲함수 침몰 장면(밤 9시 23분 40초부터 43분 43초간)을 추가로 발견했다.

Q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에서 천안함 신호가 사라진 후 6분 동안 해군은 무엇을 했나.

A 천안함 신호가 사라진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호 소실 후 6분이 경과**됐다. KNTDS의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천안함 소실 후 약 3분이 경과한 시간에 2함대사령부, 백령도, 소청도, 해군작전사령부 등의 KNTDS 근무자 4명이 천안함 소실을 인지했다. 이날 밤 9시 27분쯤 이들 4명 중

▲2함대사령부 근무자는 백령도 근무자에게 천안함 위치를 송신토록 지시했고 ▲소청도 근무자는 위성통신망을 이용해 천안함을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KNTDS에 관심표적을 지정하고, 관심표적의 정보가 수신되지 않을 때는 경보음이 울리도록 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

Q 구조전력 도착이 늦어 구조작업이 지연된 것이 아닌지.

A 구조전력은 **당시 상황에서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착**했다. 해난구조대(71명)는 사건 발생 33분 만인 3월 26일 밤 9시 55분 비상소집돼 3시간가량 출동 준비 후 버스로 평택까지 이동했고 다음 날 오전 10시쯤 헬기를 이용해 백령도에 도착, 오후 3시부터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소해(掃海·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일) 임무 등을 수행하는 옹진함과 양양함은 진해에 집결 중 임무를 맡자마자 출항해 옹진함은 3월 28일 밤 9시 30분, 양양함은 다음 날 0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다.

또 구조함인 광양함은 3월 26일 밤 10시에 즉각 출항해 총 8백64킬로미터의 거리를 최대 속도인 12노트로 운항해 3월 28일 오후 2시 40분 현장에 도착, 구조작업에 투입됐다.

탐색과 구조장비를 갖춘 평택함도 정비를 받던 중 천안함 사고가 나자 정비 일정을 하루 앞당겨 조기 출항해 3월 31일 오전 7시 현장 도착 즉시 임무를 수행했다.

Q 해군이 먼저 천안함 침몰 현장에 도착하고도 해양경찰이 생존 승조원들을 구조한 이유는.

A 높은 파도 때문에 안전을 위해 고속고무보트(RIB)를 보유한 해양경찰이 천안함 승조원들을 이송했다. 사고 당일 밤 9시 56분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해군 고속정이 천안함 갑판에 집결한 승조원을 구조하려 했으나 천안함의 침수 정도가 심각하고 높은 파도로 접근이 불가능했다. 천안함 승조원들 또한 **고속정이 접근하면 충돌해 물에 빠지거나 선체가 급속히 침몰할 것을 우려해 접근을 저지**했다.

따라서 고속정은 주변 일대에 서치라이트 탐색을 통해 추락한 승조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으며, 이때 해경정이 도착해 합동으로 구조에 나섰다. 천안함 승조원 58명은 천안함의 구명정(3개)을 이용해 침몰하던 천안함에서 벗어난 다음 해경 RIB를 이용해 해경정에 45명, 고속정에 11명, 관공선에 2명씩 옮겨 타 전원 안전하게 구조됐다. 해군의 신형 함정에는 RIB가 탑재돼 있으며, 앞으로 기존 함정에도 RIB 탑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Q 침몰 직후 부표를 설치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나.

A 당시엔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었다. 또 해양경찰이 해군으로부터 건네받은 **앵커와 부표를 투하했으나 유속이 빨라 유실**됐다. 현장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부표를 선체에 묶어 설치해야 하는데 선체가 침몰하는 상황에선 **인명 구조가 우선**이었다. 현장에 있던 고속정이 직접 천안함에 부표를 설치하려 했으나 높은 파도로 천안함에 접근하지 못했다.

Q 왜 어선이 침몰한 천안함 함미를 먼저 발견했나.

A 침몰한 천안함 함미는 **소해함 도착 전 어선이 어군탐지기로 발견했으며, 이후 소해함이 확인**했다. 3월 28일 오후까지 경남 진해에서 출발한 소해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지 못했으나 단 일초라도 빨리 침몰한 천안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던 해군은 RIB에 로프와 추를 연결해 저인망식 탐색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백령도 어선통제소에 어군탐지기를 보유한 어선의 지원을 요청, 2척을 지원받아 사고해역에 투입했다. 3월 28일 오후 3시 37분쯤 민간 어선(해덕호)으로부터 수중물체 포착 통보를 받았으며, 소해함이 밤 9시 34분 해당 구역에 도착해 음향탐색을 통해 약 한 시간 후 수중물체를 포착했고 소나영상 판독 결과 천안함 함미로 확인했다.

Q 군이 외부 인력과 장비 지원을 기피했나.

A 민간 참여와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해저 환경평가 등 일부 민간 전문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조능력은 경험과 훈련 정도를 고려할 때 군이 더 적합**했다. 특히 45미터 해저 탐색을 위한 스쿠버 역량 면에서 군 전문가와 민간 잠수사의 차이가 현저해 민간 잠수사 보호를 위한 전담인력을 둬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양작전에선 외부 인력과 장비를 협조**받았다.

Q 해군이 평소 장병들에게 수영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던 것은 아닌가.

A 장병들에 대한 수영훈련은 수영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함정 해상사고 발생에 대비해 생존을 목적으로 양성교육(4주 교육 중 2일 또는 8주 교육 중 4일)과 함정근무 중에 실시하고 있다. **천안함 승조원이 수영을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Q 침몰 당시 함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최선을 다했는가.

A 사건 발생 직전 함장은 순찰 후 함장실에 도착해 KNTDS 화면을 보고 있었다. 이때 폭발음과 함께 넘어져 3, 4초간 의식을 잃고 약 5분간 함장실에 갇혀 있었다. 승조원들이 문을 부수고 함장을 구조한 후 함장이 갑판에 올라와 보니 이미 함미 연돌 뒷부분이 절단돼 보이지 않았다. 함수는 우현 직각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좌현 함교 뒤 갑판에 승조원 20여 명이 집결해 있었다.

이후 함장은 이들 20여 명이 각 격실을 수색해 생존자 30여 명을 구조하도록 지휘했으며, 포술장에게 2함대사령부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토록 했다. 함장은 이날 밤 9시 50분까지 생존자 전원을 외부 갑판으로 이동시켰으며, 이후 매우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모든 조치를 안전하게 수행했다.

밤 10시 40분쯤 구조함정이 도착하자 함장은 생존자들에게 이함을 지시했고, 잔여 인원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밤 11시 10분쯤 마지막으로 함을 벗어났다. 함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교들은 **극한상황에서도 승조원과 함께 구조활동을 했으며, 함장이 가장 늦게 함을 떠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Q 실종자 생존가능 시간이 69시간이라고 했던 근거는.

A 실종자 가족들의 질문을 받고 수치로 알려드린 것이 해군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받게 됐다. 3월 27일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침몰된 함 내부의 수밀격실 존재 가능성과 수밀격실이 존재한다면 생존 한계시간이 얼마인지 문의해왔다.

이에 2함대 전문장교가 3월 28일 오전 6시 30분 "공기 중 산소의 양이 21퍼센트인데 7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구조상황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브리핑했다. 당시 7퍼센트가 될 때까지의 계산은 **침수되지 않은 기관부 침실에서 21명이 생존 가능한 시간은 69시간**이었다.

동아DB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해역에 꽃을 던지며 애도하고 있다.

Q 뭔가를 숨기기 위해 구조된 승조원의 입단속을 한 적은 없나.

A 생존자 58명 중 52명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가족들과 자유롭게 면회하고 있었으며, 6명은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작은 불만도 인터넷에 쉽게 올리는 요즘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생존자들이 해경정에 탑승한 후 천안함 함장은 구조된 승조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휘관으로서 기본조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생존자들은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생존자들의 증언도 공개**했다. 생존한 생존 장병들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정상 근무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다.

Q 천안함 승조원들을 인근 민간병원을 두고 먼 군병원으로 후송한 이유는.

A **군 병원은 헬기로 1시간 이내에 이송이 가능**하고, 이번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따라서 민간병원보다 군 전문병원이 효율적이다. 일부 장병들은 현지 판단에 따라 백령도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도 빠르고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갖춰진 군병원을 놔두고 민간병원으로 이송한다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Q 사건 초기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못한 이유는.

A 사건 발생 직후 함대에서 개별적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함대에서 실종자 명단을 가족들에게 일괄 제공했고 그 명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언론보도가 빨라 일부 가족들의 경우 군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Q 구조작전 때 고(故) 한주호 준위가 드라이슈트(Dry Suit)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한 것은 아닌가.

A **한 준위는 3월 30일 구조작전 때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해군은 2000년부터 상하 일체형 슈트로 잠수복 내 보온용 내복 착용이 가능한 드라이슈트를 도입해 사용했다.

Q 천안함 사태 직후 감지된 지진파를 빨리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A 지진파 정보가 최초로 접수된 것은 사건 발생 이후 9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다. 당시로선 **지진파가 발생한 추정 시각보다는 '폭발사고'임을 확인해주는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됐다. 당시로선 예하부대에서 보고한 천안함 폭발 시간이 신뢰도가 높다고 봤다.

그러나 사건 발생 4, 5일이 경과하면서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다른 조사 자료와 함께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분석한 밤 9시 21분 58초를 사건 발생 시각으로 공식 발표하게 된 것이다.

Q 고 김태석 원사(추서계급)의 진급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나.

A 그런 사실이 없다. 해군은 **고 김 원사를 진급자로 확정해 3월 31일자로 진급 발령을 냈다.** '4월 1일 이전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진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행방불명자의 경우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휴직되며, 이후 복직할 때 진급 발령이 보류된다. 그러나 해군은 고 김 원사와 문규석 원사(추서계급)가 생존해 있음을 전제로 구조작전을 펼쳤다. 천안함의 위치가 정확히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행방불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 두 사람에 대해 진급 발령했다. G

정리 · 박경아 기자

르포 / 55일 만에 공개된 천안함… 현장을 가다

선체 하부 종잇장처럼 휘어 '외부 폭발' 입증

민군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천안함 절단면은 처참하게 찢겨져 있었다.

처참하고 참담했다. 선체를 감싸고 있던 외벽은 떨어져나가고 온통 헝클어진 전선과 케이블이 제멋대로 뒤엉켜 있었다. 강철판은 휴지조각처럼 꺾여 있었다. 5월 1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 지난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절단면이 사건 발생 55일 만에 언론에 최초로 공개됐다.

첫눈에 들어온 천안함의 정면 모습은 길이 88미터에 너비 10미터, 높이 23미터의 웅장함 그대로였다. 뱃머리에 새겨진 772라는 숫자가 이 함정이 바로 천안함이란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걸음을 몇 발자국 옆으로 옮기자 처참한 절단면이 눈에 들어왔다. 이 공간이 해군 초계함 천안함 승조원들이 머물던 곳이라는 생각과 함께 피격 당시의 현장이 연상돼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절단면 사이로 드러난 내벽과 선실의 모습도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선실 바닥이 있어야 할 곳은 허공이었다. 선실 내벽과 직각을 이뤄야 할 바닥은 종잇장처럼 휘어져 선실 내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휴지조각처럼 휘어지고 접혀 있는 각종 보강재들은 사고 당시 얼마나 큰 충격이 천안함을 강타했는지 보여줬다.

선체의 하부를 이루고 있는 강철판이 휘어지고 뜯겨진 모습은 그동안 제기됐던 내부 폭발 등 각종 논란을 일축하고 외부 폭발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했다. 천안함의 왼쪽 하부는 선체 외벽이 안으로 꺾여 들어와 있었다. 함체의 아주 넓고 큰 철판이 급격한 각도로 내부로 휘어진 모습은 선체 왼쪽 아래에서 아주 강한 외부 충격이 있었음을 입증했다.

또 절단면에 늘어져 있는 수백, 수천 가닥의 전선과 케이블 뭉치들은 찢기고 끊겨 있었지만, 이들을 감싸고 있는 비닐 피복은 녹거나 그을린 자국 없이 깨끗했다. 함수에서 33미터 떨어진 선체의 오른쪽 측면은 주변부와 달리 함체 외벽이 안으로 조금씩 둥그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다. 어뢰가 선체 부근에서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파에 의해 강철로 만든 외벽이 안으로 밀려든 것이었다.

피격 부분 제외한 함체 바닥 손상된 곳 없어

이날 공개된 천안함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암초에 의한 좌초설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었음을 증명했다. 뱃머리부터 꼬리까지 함체의 바닥은 인양을 위해 체인을 연결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손상된 곳 없이 깨끗했다. 함미 하부 끝부분에 달린 스크루의 상태 역시 인양 도중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저에서 긁힌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절단면 공개 현장에 참석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천안함 선체 하단에서 안으로 엄청나게 큰 각도로 위쪽으로 휘어졌다"면서 "이것을 보고 암초 충돌이나 선체피로로 인한 파괴라고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G

글 · 채현식(문화일보 사회부 기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

이 대통령,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5월 21일 오전 8시부터 3시간여 동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로서 국제공조 강화방안을 비롯해 군 대비태세, 남북관계와 국가신인도 관리, 북한 위협 대비태세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회의에서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군 대비태세·남북관계 등 북한 위협 대비 집중 논의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군사적 측면과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국제적 측면과 모처럼 회복세에 있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논의사항을 토대로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담화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NSC 위원 전원이 모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희원 안보특보,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이상의 합참의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로부터 북한의 움직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향,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보고받고,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북한에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회의 직후 외교통상부는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양자, 다자 간 접촉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방안이 협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엄종식 차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북 지원과 교역 중단 등 가능한 대북 조치를 숙의했다. 특히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반발해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육로통행 폐쇄 등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 지역 체류 국민에 대한 신변보호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5월 20일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에도 수뇌부가 모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경계태세 강화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근거 없는 비방과 불법집회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NSC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과 일본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에 따른 종합대책을 논의하고자 처음 소집했으며,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두 번째로 소집했다. 이어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세 번째 NSC를 소집한 바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태의 후속조치로서 국제공조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영철 기자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해외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는 등 큰 관심을 드러냈다.

세계 주요 외신 천안함 조사결과 '주목'

"민군 합동조사단 증거물 北 고의적 소행 극명하게 보여줘"

"한국이 천안함 사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5월 20일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나오자마자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긴급 타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에 감도는 외교폭풍'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켜 승조원 4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한국의 공식 발표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지원 아래 '북한을 제재하라'는 외교적 북소리(Diplomatic Drumbeat)의 신호탄을 울릴 것"이라며 "이 주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중국의 입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과 이웃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북한 규탄에 동참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한 것.

또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에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지했으나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미국은 한국 초계함을 침몰시킨 북한에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타전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향후 며칠간 매우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때 미국의 반응이 중점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임〉지는 '북한, 어뢰 공격으로 응징받을까?'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1953년 이후 한반도의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시켜온 정전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건"이라며 "이런 행동을 한 북한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中, 국제사회의 새로운 북한 규탄 동참할지 관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국제적 제재 수위를 높일 경우 북한이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들어 "한국은 이미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무력 과시에 익숙해져 있다"며 "이번 결과로 북한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릴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외신들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상세히 전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주목했다.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북한의 반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포위망을 구축할지 주목된다"고 썼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제조사단의 결과 신뢰한다"

세계 각국, 천안함 사태 공동대응 적극 참여 의사 밝혀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을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미국, 일본, 영국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유엔도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에서 조사결과를 지지했다.

연합

일본 정부는 천안함 사태 대응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한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이 5월 20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지지하는 각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5월 20일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직후 가장 먼저 지지 의사를 밝힌 나라는 미국이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밤늦게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다. 백악관 성명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천안함 승조원 46명의 희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면서 "미국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침략행위를 강력하게 규탄(condemn)한다" 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국제조사단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다" 면서 "이(조사결과)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너무도 강력히(overwhelmingly) 알려준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격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또 하나의 예" 라면서 "이번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 이라고 비난했다.

"천안함 공격은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도전"

북한에 대한 경고문도 담았다. 성명서는 "북한은 이웃들에 대한 호전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힘이 아닌 약함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면서 "그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모든 도발에 맞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이웃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화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신뢰한다는 견해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천안함 사태) 조사는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며 한미 양국 정부는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고 말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천안함 조사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앞으로 한국 정

미국은 가장 먼저 한국 정부에 지지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모든 도발에 맞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이웃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부와 대응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본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천안함 사태 결과 발표 직후인 20일 낮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의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난 메시지도 덧붙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北 공격행위, 국제사회 깊은 불신 초래할 것"

또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미국 등 관련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도 동조하고 있다. 윌리엄 헤이그 신임 외교장관은 20일(현지시간) "천안함 사태 조사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헤이그 장관은 "(북한의) 공격행위는 국제사회에 깊은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생명을 경시하고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심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서 "그간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절제와 인내심을 가지고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해온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특히 "보고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는 매우 엄중하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美, 국무장관 파견… 향후 대응 협의
日, 국제공조 과정서 한국 정부 지지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8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오바마 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향후 대응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국제공조가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5월 18일과 19일에 각각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한 대응에 긴밀히 협력해 강력한 국제공조를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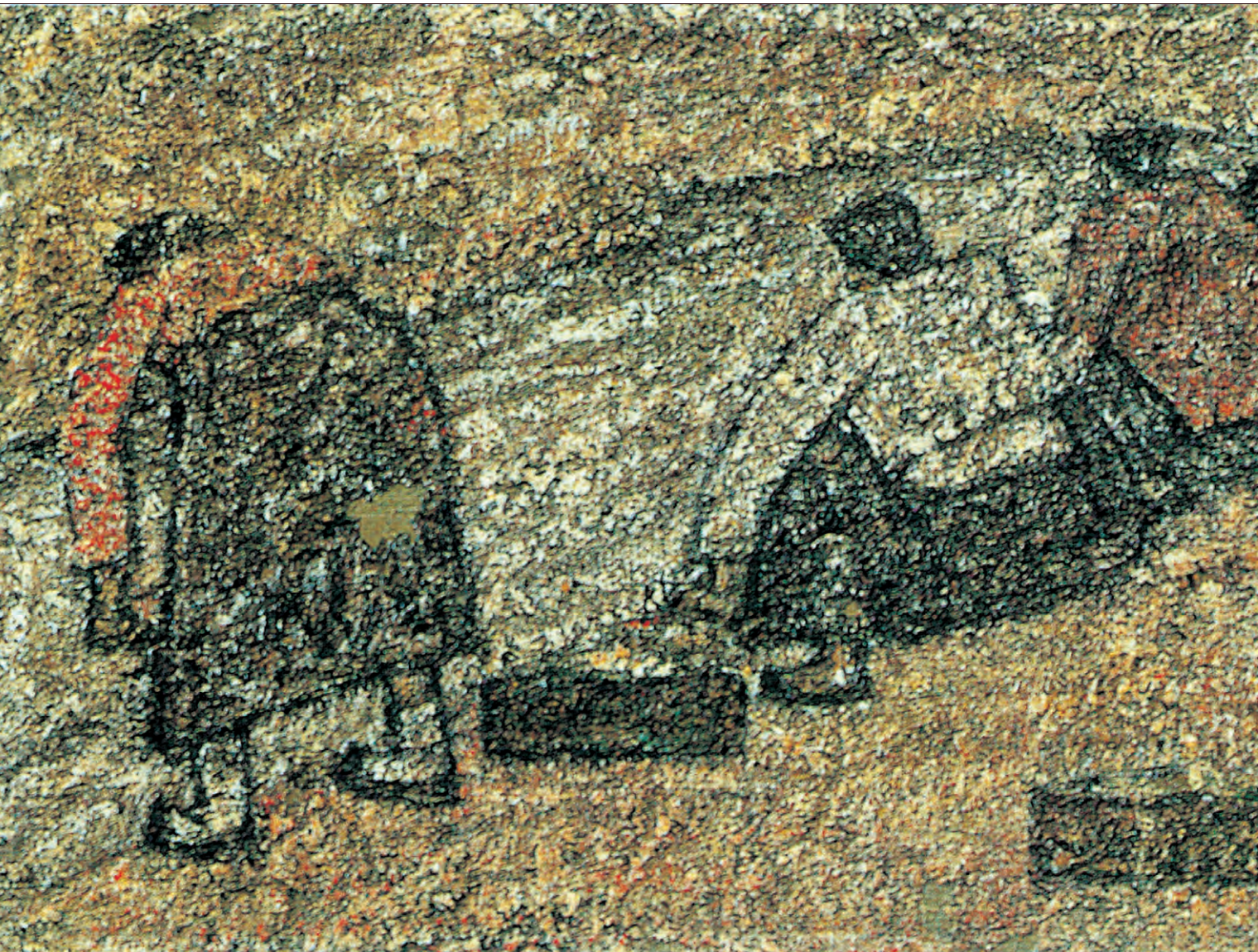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25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과 한미동맹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설명하며 "조사가 당초 계획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천안함 사태를 통해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한국에 파견해 향후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양국 정상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1874호)에 따른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조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악관 보도자료는 "조사 결과 어떤 사실이 나오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의 조사활동에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5월 19일 오후 5시 15분부터 20분간 하토야마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처리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강력한 국제공조를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물증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특히 국제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벌여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글 · 박경아 기자

박수근에게 빨래터는 특별한 장소다.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고, 아낙네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다.
〈빨래터〉 캔버스에 오일, 15x31cm, 1954년.

화폭 가득 펼쳐진 그 시절의 초상

박수근 45주기 기념전… 갤러리 현대에서 5월 30일까지

6·25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속개된
제2회 대한민국 미술전 서양화부에 출품해 특선한 작품.
〈우물가〉 캔버스에 오일, 80.3x100cm, 1953년.

무채색 풍광만 덩그러니 남은 겨울,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가 서 있다. 그 아래로 아이를 업은 여인과 물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이 끝도 없어 보이는 길을 걸어간다. 박수근이 그린 〈나무와 여인〉(1956)의 모습이다.

이 작품 속 나무와 두 여인은 춥고 배고프던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한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나목(裸木)은 봄이 아직 멀지만 언젠가 올 거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

50년 전,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그렸던 '국민화가' 박수근(1914~1965).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5년. 서민들의 삶을 그려낸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1953년 제2회 국전 특선작인 〈우물가〉를 비롯해 〈유동〉(1963), 〈빨래터〉(1954) 등 박수근의 절정기이던 1950~60년대의 작품들이다. 〈목련〉(1960) 등 이번 전

자택 작업실에서. 1963년.

나무와 여인을 소재로 서민 생활의 단면을 직설적으로 묘사했다.
나목을 경계로 좌우균형에 맞춰 그려진 여인들의 대치된 포즈가 재치 있다.
〈나무와 여인〉 하드보드지에 오일, 27x19.5cm, 1956년.

시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박수근은 일제 치하와 6·25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암담한 시기를 겪었다. 그는 시대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고 소박하게 캔버스에 옮겼다. 특히 단순화된 선과 구도, 화강암의 질감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마티에르 기법을 완성해 가장 한국적인 화법을 추구한 작가로 사랑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 갤러리 현대에서 5월 30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는 박수근의 작품 외에도 그의 다큐멘터리 영상, 박수근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마거릿 밀러 부인과 교류했던 편지 사본, 박수근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마련돼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박수근은 생전에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G

글·김민지 기자

갤러리 현대 Tel **02-2287-3500**

소박한 여인이 물건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화강암처럼 투박한 질감으로 그렸다. 〈귀로〉 하드보드지에 오일, 20.5x36.5cm, 1965년.

박수근은 같은 주제를 두고 여러 차례 그림을 그렸다. 길거리에 앉아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표현한 작품. 〈노상〉 하드보드지에 오일, 20.7x29.4cm, 1964년.

조영철 기자

작고 45주기를 기념해 열린 박수근전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작품 설명시간을 갖는다.

조영철 기자

박수근전 2층 벽면에는 1959년 자택에서 아내와 박수근 화백, 막내딸이 찍힌 사진이 걸려 있다.

"미안합니다 먼저 말하기" 글로벌 코리아 참 쉽죠

'글로벌 에티켓' 운동 벌이는 민병철 교수

'전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타기' '뒷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기'…. 영어교육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민병철 건국대 국제학부 교수가 글로벌 에티켓 전도사로 나섰다. 사소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공공예절을 공론화해 G20 정상회의를 앞둔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이다.

"올해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글로벌 에티켓 운동을 통해 배려문화가 널리 퍼진다면 겉과 속이 모두 꽉 찬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개최국다운 품격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어교육 전문가로 유명한 민병철 건국대 국제학부 교수가 글로벌 에티켓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 민 교수와 78명의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을 위해 서울지하철 건대입구역에 모였다. 이들은 5월 6일부터 건국대 캠퍼스와 주변 공공장소에서 하루 2, 3시간씩 예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날도 7개조로 나뉜 학생들은 민 교수의 지도 아래 역내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전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모두 내린 후 타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기' '공공장소에서 침 뱉지 않기' '험담 대신 칭찬과 격려하기' '공공장소에서 금연하기' '뒷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기' '미안합니다 먼저 말하

민병철 교수(오른쪽)와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학생들이 공공예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기' 등 기본 예절 7개 항목을 뽑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들은 저마다 아이디어를 동원해 작은 쪽지에 에티켓 글귀를 적어 막대 사탕에 붙여 나눠주거나, 색동 모자를 만들어 쓰고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적극적인 학생들은 지하철 이용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며 공공예절에 동참할 것을 권했다.

이 캠페인에 참가한 중국 유학생 곽소문 씨는 "처음 할 때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즐겁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캠페인 조장으로 활동하는 강민호 씨는 "현재 캠페인 관련 손수제작물(UCC)을 만들고 있다"며 캠페인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

제자들과 함께 지하철역 등지서 예절 캠페인 벌여

민병철 교수는 "학생들이 졸업 후 세계인을 상대로 사업에 성공하려면 글로벌 에티켓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G20 정상회의 전에 학생들이 몸소 현장에서 예절을 권하고 실천하면 그만큼 좋은 체험교육이 없다는 생각에서 직접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민 교수와 '비즈니스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3월부터 이 캠페인을 준비해왔다. 글로벌 에티켓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캠페인의 세부 주제를 정했다. 민 교수는 지난해 한국인들이 소홀히 하는 공공 에티켓을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책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책에서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여긴 항목을 직접 뽑아냈다.

대학 교수가 거리로 나와 공공예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병철 어학교육연구소' 회장이기도 한 그는 "글로벌화하는 사회에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늘 고민해왔다"며 "작은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0년이 넘는 영어교육자로서의 인생은 이제 예절 캠페인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그는 캠페인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교육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에티켓 운동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라 성인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고 한국에서 살게 될 것이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의 열정적인 예절 캠페인 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악성 댓글로 연예인이 자살하는 사건에 충격을 받은 그는 2007년 고승덕 변호사, 배우 안성기, 유동근, 방송인 김제동 씨 등과 함께 '선플(착한 댓글) 달기' 운동을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악플 대신 선플을 달자는 주장을 펼치며, 현재 선플달기운동본부 이사장으로도 활약 중이다. 5월 29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선플달기 전국 릴레이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민 교수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다운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에티켓 운동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자라 성인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고 한국에서 살게 될 것이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글로벌 에티켓 운동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건국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선플 운동처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 교수는 글로벌 에티켓 운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주, 인천 등의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찾아오고 있다며 "꾸준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와 학생들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캠페인을 매회 기록하고 있으며, 5월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캠페인 전후 변화를 분석해 6월에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182 누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는 길을 잃고 헤매는 아동과 치매노인 등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한다. 센터를 지키는 21명의 여경들은 182로 신고만 빨리하면 실종자를 1백 퍼센트 찾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실종자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 1992년 이혼한 부모는 남매(당시 8, 6세)를 대구의 고아원에 두고 떠났다. 남매는 원아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역 주변을 전전하다 경찰관의 눈에 띄어 다시 경기 평택의 아동시설에 맡겨졌다.

지난해 2월 장기 실종아동들의 사진을 우연히 본 한 남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남매의 큰아버지였다. 그는 동생(남매의 아버지)의 이름과 나이만 알 뿐 연락처를 몰랐다.

경찰이 아버지와 남매가 20년 가까이 밟아온 길을 추적하는 데 1년 남짓 걸렸다. 경찰은 올 3월 4일엔 남매를, 9일엔 아버지를 찾았다. 남매는 경기 안산시에 터를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행방을 알게 된 다음 날인 3월 10일 남매는 경남지역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서먹했지만 애틋함이 묻어나는 18년 만의 해후였다.

#2 평생 엄마 없이 자란 딸은 잊고 살았건만 결혼을 앞두자 핏줄이 당겼다. 고아원을 통해 알게 된 이름과 나이로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 설마 하는 심정으로 경찰에 문의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주소를 알아냈고, 엄마를 만나기 위해 며칠이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엄마는 당황하고 놀랐다. 해외로 입양된 줄 알았던 '핏덩어리'가 주변에 살아 있을 줄이야. 젊은 시절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덜컥 낳은 아이였다. 아직도 엄마는 27년 만에 들려온 딸의 부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3 1979년, 여동생에게 꾼 12만원을 갚지 못해 실종을 자처한 남자(56)도 있다. 그의 부모는 장남이 돌아오지 않자 죽었다고 여기고 1985년 그를 주민등록에서 지웠다. 평생 외롭게 떠돌아 늙고 주린 남자는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걸 확인했다. 먹고살 길이 막막했다.

고민하던 남자는 올 1월 182센터에 전화를 했다. 경찰이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노모(71)는 그가 가출할 당시 살던 마을에 홀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노환으로, 남동생은 암으로 숨진 뒤였다. 모자는 31년 만에 만났다. 노모는 "아들이 무덤에서 살아왔다"고 기뻐했다. 여동생은 돈을 빌려준 사실도 잊고 있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올 3월엔 실종신고가 부쩍 늘었다. 경찰에 2천1백8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백38건보다 33퍼센트나 증가했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영향이 컸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지난달 가족 품으로 돌아간 실종자도 2천1백37명이나 된다.

가슴 아픈 사연도 많다. 실종은 흔히 세 부류로 나뉜다. 범죄에 의한 실종, 자발적인 실종(가출), 그리고 장애나 치매, 생활고 등으로 가족이 묵인하는 실종. 그중에는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 핏줄을 실종으로 내몰아야 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만난 가족도 있었다.

경찰청 182센터(실종아동찾기센터) 신영숙 센터장(경감)은 "범죄에 의한 실종도 간혹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실종가족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죄스러움과 여전히 받쳐주지 않는 경제력 때문에 수십 년 만의 상봉을 망설이는 가족도 있다고 했다. 그들을 위해 경찰은 지난해부터 가족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182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21명의 여경이 책임지고 있다. 5명씩 4교대로 24시간 내내 전화기를 지킨다. 실종신고

182센터 근무 경찰들은 5명씩 4교대로 24시간 내내 실종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182센터는 신영숙 센터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포함해 21명의 여경들이 책임지고 있다.

가 많았던 3월엔 1인당 매일 15.9건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했다. 일단 전화기 앞에 앉으면 잠시 짬을 내기도 힘들다.

센터 직원들은 모두 기혼자다. 가족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한 조치다. 윤애리 경사는 "급한 마음에 빨리 처리해달라며 화를 내는 이들도 있지만 제 일처럼 정확하게 찾아주기 위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다. 정미란 경사는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실종아동 대부분이 조부모가정 등 환경 탓이 커 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실종자 찾기 시스템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엔 간단한 시스템 검색만으로 7백23명을 찾았다. DNA 검색, 프로파일링(실종자 특성 파악), 몽타주 배포, 고아원 등 관련 시설 3천3백 곳의 일제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DNA 검색 · 관련 시설 일제수색 등으로 지난해 723명 찾아

센터 경찰관들은 모두 잠든 새벽 2, 3시에 누군가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실종가족들의 항의와 불만, 욕설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속상한 건 사회의 무관심이다.

이들은 "실종을 개인의 문제나 경찰만의 직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사회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거리를 떠도는 치매노인, 건물 안에 웅크려 앉은 장애인, 보호자 없이 맴도는 아이들을 조금만 유심히 봐달라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182로 신고만 빨리 하면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 (실종자를) 1백 퍼센트 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182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21명의 여경이 책임지고 있다. 센터 경찰관들은 모두 잠든 새벽 2, 3시에 누군가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실종가족들의 항의와 불만, 욕설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속상한 건 사회의 무관심이다.

조촐한 센터 사무실 벽면엔 부모가 애타게 찾는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10년 넘게 사라진 아이들의 실종 당시 사진 곁엔 컴퓨터로 재현한 최근 추정 모습이 담겨 있다. 센터 직원들은 전화기 앞에서 그들의 소식을 기다린다. 제보자가 당신일 수도 있다. 국번 없이 182를 누르면 된다. G

글 · 고찬유(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한국의 美’ 꽃으로 피어나다

텍스타일 디자이너 장응복展… 5월 30일까지

텍스타일과 가구,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유명한 장응복 씨가 10년 전부터 공들여 준비해온 ‘신상’ 작품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갤러리 아트링크에서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숨은 꽃(Hidden Flowers)’이라는 전시회의 이름처럼 신비로움 그 자체다.

여름맞이 통과의례처럼 주룩주룩 내리던 봄비가 처마 끝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기 무섭게 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경쾌한 리듬에 맞춰 통유리창 너머 한복 차림의 여성이 시선을 잡아당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네모난 패널 안에 그 여인이 서 있다. 사진인가 싶더니 갑자기 눈을 깜박인다. 치마에 새겨진 도자기 문양이 화사한 연꽃 문양으로, 또 가지런한 고무신 문양으로 변화를 거듭한다. 마치 한 권의 사진첩처럼 제작된 이 기발한 영상은 텍스타일 디자이너 장응복(49) 작가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갤러리 아트링크. 이곳에선 ‘숨은 꽃(Hidden Flowers)’이란 주제로 그의 작품 전시회가 5월 30일까지 열리고 있다.

우리 고유의 미감을 살린 텍스타일, 가구,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유명한 그는 패브릭 브랜드 ‘모노콜렉션’의 대표로 활동하며 최고급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작업에도 참여해왔다.

전시실의 한쪽 방에서는 황백색 한지 테이블이 기다랗게

사진제공 · STUDIO1839

1 도자기, 꽃신, 연꽃 문양의 화려한 실크프린트가 단아한 한복에 세련미를 더한다.

2 진경산수의 대가 정선의 〈금강산도〉와 민화를 응용한 한지 병풍.

3 조선시대 관복장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가구. 작가는 이 작품을 '조각'이라고 규정했다.

4 한지 테이블의 기하학적 디자인이 은은한 불빛과 어우러져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늘어선 채 발광다이오드(LED)의 은은한 불빛을 뿜어냈다. 건너편 방은 정선의 〈금강산도〉와 민화의 이미지를 응용해 만든 열두 폭 한지 병풍이 차지하고 있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바닥에 환한 모란꽃이 피어 있는 가구가 보였다.

장응복 작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다른 이 한지 가구를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꼽았다. 그는 "조선시대에 관복을 보관하던 옷장에서 착안해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조각'이다. 간결하고 검소한 외양과 달리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이 좋은 기를 뿜어낸다"고 작품 설명을 덧붙였다. 기의 흐름과 음양의 조화, 여백의 미는 그의 모든 작품을 이어주는 공통분모다.

그는 이번 전시의 주된 재료로 한지를 사용했다. 한지는 숨을 쉬며 빛과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예전엔 옷장에 바르거나 한옥의 창호지로 쓰였다. 우리 고유의 정서를 품은 단아한 인테리어 아이템이 전통과 현대, 자연과 삶의 조화를 추구해온 장응복 작가의 작품세계를 제대로 느끼게 한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갤러리 아트링크 Tel **02-738-0738**

재취업 하실래요, 창업 하실래요?

'뉴잡'·'창업스쿨' 등 전직 지원·직무 훈련 등 정부 지원 다양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직통보를 받은 '비자발적' 퇴직자들은 앞이 캄캄하다. 이들에게 무료로 일자리 찾기를 도와주는 정부 지원 공공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려보면 재취업의 좁은 문이 열릴 수도 있다. 전문직 퇴직자, 창업 희망자, 고령 퇴직자 등 대상별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1년에 걸친 실직의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울진농수산물유통의 CEO로 재취업한 장필규(56) 씨는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뉴잡)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건국대 축산학과를 나온 장 씨는 정년을 2년 앞둔 2007년, 두산그룹 종가집김치의 생산본부장을 끝으로 정든 회사를 떠났다. 정년을 채우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7년 후배가 상사로 부임한 것이 그의 퇴직 결심을 굳히게 했다.

퇴직의 찬바람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2개월을 허비했고, 회사 생활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로 치주질환까지 도졌다. 기진맥진한 그가 후배의 소개로 찾은 곳이 재취업센터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보다 훨씬 많은 강의를 듣고 상담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강한 재취업 의지와 진취적인 자세, 긍정적 마인드가 그의 한 발 앞선 재취업 비결이다.

중간관리자로 퇴직한 그는 CEO를 목표로 내걸었고, 그가 재취업 교육을 마칠 즈음 '농업 CEO MBA 과정'이 등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처음 개설한 이 과정에는 60명 선발에 4백명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장 씨는 이미 재취업센터의 '실전교육'으로 무장한 터라 합격이 어렵지는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경북 울진의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설립된 울진농수산물유통이 CEO 공채에 나섰고, 장 씨가 적임자로 뽑혔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실직 기간은 인생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장 씨가 재취업 전선에 나선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값진 도움말이다.

당신이 만약 오늘 퇴직통보를 받는다면? 분노, 좌절, 허탈 등 갖가지 감정이 마구 뒤섞일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닐 테지만, 막상 기정사실이 되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게 대다수 '비자발적 퇴직자'들의 얘기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 뒤 맨 먼저 하게 되는 현실적 대응은 새로운 일자리 알아보기다.

그런데 평소 눈여겨 봐둔 것도 없고, 나서주는 사람이 있거나 헤드헌터 업체의 연락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면? 무료로 일자리 찾기를 도와주는 공공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리는 게 최선이다.

일대일 맞춤식 전직 지원 | 재취업지원센터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공동 운영하는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뉴잡)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실직 가장들의 재취업 지원 필요성을 느낀 노사가 협의를 계속해 2005년 11월 출범하게 된 기관이다. 기업과 직장인들이 낸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이다.

이 센터는 1년 이상 일한 경력자에게 '일대일 맞춤식'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4개 지역에 약 60명의 컨설턴트가 배치돼 구직 상담은 물론 심리 상담도 해준다. 재취업·창업 컨설팅 서비스 기간은 3개월이며,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편적인 구직 알선과 달리 경력 전환에서부터 역량 강화, 정보와 전략 제공, 실행,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직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컨설턴트와 머리를 맞대다 보면 퇴직으로 생긴 '울화'를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고 한다. 서울, 부산, 경기 지역엔 고객지원실이라는 이름의 사무공간이 마련돼 그나마 아침에 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 '덤'으로 주어진다.

이용자는 2006년 4천명 수준에서 지난해 2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 4만1천5백8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그중 41퍼센트인 1만7천2백44명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일자

리를 찾았다. 재취업이 1만6천7백35명으로 창업(5백9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재취업지원센터 김인수 컨설턴트는 "철저한 자기 분석으로 역량을 파악하고 진로 선택과 경력 목표를 분명히 세운 뒤,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 Tel **02-368-2300 www.newjob.or.kr**

준비부터 이후까지 | 성공창업 패키지

창업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면 소상공인진흥원의 성공창업 패키지교육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내세우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적성진단과 이론·실습 교육, 워크숍 등 80시간에 이르는 6단계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멀티카페, 차전문점, 모바일 콘텐츠 등으로 영역을 넓히려 애쓰고 있다.

창업에 '지나친 준비'라는 것은 없다. 노후가 걸린 은퇴 자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창업 아이템 선정, 상권 분석, 입지 선택, 매장 꾸미기, 점포 관리, 세금 관리까지 창업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은 필수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자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도우미 업체와 연계해 지원하고 동아리 운영, 수료생 특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도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과정 수료 2년 이내에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약 1만2천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일단 7천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교육비는 무료이며 현장 실습비 5만원이 필요하다.

여성 퇴직자는 5월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리는 '여성 실전 창업스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예비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여성 고부가가치 업종,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25개 과정으로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창업 실무와 과정별 실습교육을 한다.

과정 이수자는 대출 심사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교육을 하며 교육 기간은 약 3개월, 80시간이다.

소상공인진흥원 Tel **042-363-7761~2 www.sbdc.or.kr**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Tel **02-369-0926 www.wacademy.co.kr**

퇴직자 대상 훈련 · 연수 | 재취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기능을 익혀 몸으로 뛰겠다는 퇴직자들을 위한 것이다. 직무훈련(1~3개월·하루 4~8시간)과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현장연수(1주~3개월)로 구성돼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50세 이상 실직자가 대상이다. 구직 등록을 하면 심층 상담을 받은 뒤 훈련과 연수를 거쳐 취업 알선을 받게 된다. 그 기간 월 20만원의 수당이 나온다.

노동부 위탁기관에서 특수 용접, 주차 정산·관리, 조경 등 83개 직종의 직무, 현장연수 교육을 받게 된다. ▲실버컴퓨터 ▲실버건강 ▲역사해설 ▲웰빙푸드 등 사회의 변화에 맞춘 과정도 있다. 올해는 63개 기관에서 1백 개 과정을 운영하며, 예상 인원은 3천4백명이다. G

글 · 박중언(한겨레 경제부 기자)

일러스트 · 이우정

고령자 뉴스타트 Tel **02-3271-9107**
www.hrdkorea.or.kr/3/1/2/3

일러스트 · 남동윤

"가족 돌봄 서비스로 안심하고 직장 다녀요"

여성가족부 '아이 돌보미' 등 가족 지원 정책 적극 확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가족 돌봄 서비스로 자녀 양육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 등 양육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족 지원 정책을 살펴봤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김매실(가명 · 45) 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원 강사 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하는 엄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말부부로 지내다 첫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의 직장이 있는 원주로 이사했다. 아이가 하나였을 때는 그럭저럭 일과 육아를 같이 꾸려갈 수 있었지만 둘째가 태어나자 사정이 달라졌다.

"친정어머니도 일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멀리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아이는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니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김 씨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됐다. 사설기관에 비해 훨씬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운영하는 곳이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맞벌이 · 한부모 가정 부담 덜어

"어린이집처럼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끔씩 꼭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맞벌이 부부인 우리처럼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될 사정이 생기면 무척 당황스러운

데, 이럴 때 믿고 의지할 곳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김 씨에게 큰 도움이 된 아이 돌보미 사업을 비롯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 기존 업무에 더해 청소년·가족정책을 함께 수행하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 확대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와 취업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더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출장을 가거나 질병 등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아주는 이 서비스는 2006년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실시하다가 올해부터 전국 2백32개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된다.

6월에는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영아 발달특성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0세아 정기 돌봄 사업'도 시행된다. 아이 돌보미가 하루 11시간씩 주 5일간 3~12개월 영아를 돌봐주는 것. 아이 돌보미는 40시간의 양성교육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만 62세 이하의 중·장년 여성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인정숙 과장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저소득 중·장년층 여성들의 취업 장려라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3~12개월 영아가 있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2백58만원)에 해당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상 가구의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총 1천2백 가구에 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전국 1백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사업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전문지도사가 직접 다문화 가정으로 찾아가 한국어 교육과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등이 그것.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 학비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이 현재 전국에 1백18개가 있는데 올해 25개가 추가로 설립돼 한부모 가족들의 생활보호와 자립 기반을 도울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보호시설에 최소 6개월, 최장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만 25세 미만이면서 아빠 또는 엄마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이 실시됐다.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편견 등의 힘든 상황에서 양육을 포기하기 쉽고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기 쉬운 처지에 있어 빈곤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책은 최저생계비 1백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아동 양육비, 아동 의료비, 자립 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해준다. 근로 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만 25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본인이나 친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여성 장애인 등 지원도 늘려

또한 청소년들이 유해매체, 약물,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과 조절력을 길러주는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Youth Patrol)' 프로그램, 가출 청소년들에게 일시 보호와 상담,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해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장애여성 특화 전문기관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20개소의 센터를 열어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인 장애여성 88만명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김권영 과장은 "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및 취업알선 등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가족 돌봄 서비스…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기관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0-2200	familynet.or.kr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02-3140-2260	mfsc.familynet.or.kr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02-3274-1375	child1375.or.kr
한국청소년진흥센터	02-6430-0900	kysc.or.kr
한국청소년상담원	02-2250-3000	kyci.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3210-1050	stop.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2-3156-6100	kigepe.or.kr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상담)	1577-9337	

옛 7번국도에서 내려다본 용화해수욕장의 에메랄드빛 바다.

산자락 끝 바다… 바다 끝 산자락…
눈이 트이고 가슴이 열리네

한양과 경기 동부, 강원도를 이어주던 관동대로는 조선시대의 9대 간선도로 중 제3로였다. 이 길은 한양 흥인문을 출발해 대관령을 넘고, 강릉 안인역과 삼척 사직역, 용화역, 소공령, 월천리, 갈령, 울진 망양정 등을 두루 거쳐 평해에 이르는 대로였다.

전체 길이 9백20리의 관동대로 가운데 동해의 쪽빛 바다와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의 명재상 황희의 자취가 서린 삼척 구간 60리(24킬로미터)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 탐방로로 지정됐다.

관동대로 삼척 구간은 '수로부인길'이란 이름이 붙었다. 수로부인은 신라 제33대 성덕왕 때 강릉태수를 역임한 순정공의 아내다. 〈삼국유사〉 '수로부인전'에는 이런 설화가 전해온다.

강릉태수로 임명된 순정공이 수로부인과 함께 강릉으로 향하던 중 어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득한 높이의 바위 벼랑이 우뚝 솟았고, 벼랑 위에는 붉은 철쭉꽃이 한창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것을 본 수로부인이 "누가 저 꽃을 꺾어다 내게 주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 절벽은 사람이 발붙일 데가 못 됩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때마침 소를 끌고 그곳을 지나던 한 노인이 수로부인의 말을 듣고 절벽에 기어올라 꽃을 꺾어 바치며 헌화가를 불렀다.

이틀 뒤 순정공 일행은 또 어느 바닷가의 정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 수로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 크게 놀란 순정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인을 구할 묘책이 없느냐고 물었다.

해가사터비·임해정 등 수로부인공원 조성

한 노인이 말하기를 "옛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했는데, 이 바다짐승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백성을 불러모아 해가(海歌)를 부르게 하고 몽둥이로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이 풀려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 말대로 했더니 바다에서 나온 용이 부인을 풀어줬다. 수로부인은 워낙 용모와 자태가 아름다워서 그 뒤로도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신물(神物)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나곤 했다.

당시 강릉으로 향하던 순정공과 수로부인의 실제 노정(路程)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동해안의 남북을 가로지른 교통로였던 관동대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노정을 밟았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관동대로 삼척 구간이 수로부인길이라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척시의 맨 북쪽 해안인 증산해수욕장에는 해가사터비와 임해정, 드래곤볼 등이 설치된 수로부인공원도 조성돼 있다.

삼척은 산다운 산, 바다다운 바다를 품은 고장이다. 창망한 동해바다는 어딜 가나 쪽빛으로 일렁이고, 백두대간과 맞닿은 산줄기는 기운차고 늠름하다. 삼척 땅의 산과 바다는 서로 맞닿아 있다. 산자락이 끝나는 곳에 바다가 출렁이고, 파도치는 바닷가에서 곧바로 기세등등한 산줄기가 시작된다. 삼척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수로부인길도 바닷가를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산길 구간이 많다. 그래서 눈맛이 상쾌하고 가슴이 후련하다.

수로부인 전설 서린 1코스 '옛이야기 속으로'

수로부인길 제1코스엔 '옛이야기 속으로'라는 부제가 붙었다. 해안선이 아름답고 바닷물이 깨끗하기로 소문난 용화해수욕장이 있는 용화리에서 길이 시작된다. 용화리는 여름철만 되면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손님맞이에 분주할 성싶다. 궁촌~용화 사이 5.4킬로미터의 옛 철도부지에 복선 해양 레일바이크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해안선을 따라가는 이 레일바이크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운행될 예정이다.

수로부인길 안내판이 서 있는 장호초교 앞에서 약 3킬로미터 떨어진 아칠목재 고갯마루까지는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시멘트도로가 지루하게 이어진다. 옛날에 이 고갯길은 숲이 울창해 산적과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래쪽 주막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넘었다고 전해진다. 그래도 언제 산적이나

옛날에는 산적과 호랑이가 수시로 출몰할 만큼 숲이 울창했다는 아칠목재 정상.

준경묘 일대의 하늘을 찌를 듯한 금강소나무 숲.

호랑이가 나타날지 몰라서 아찔한 마음으로 넘어 다녔다고 해서 아칠목재라 불렸다고 한다.

이 고갯마루에는 옛 사람들이 남긴 국시뎅이 흔적도 남아 있다. 국시뎅이는 옛날에 고갯길을 넘던 사람들이 무사안녕을 빌며 하나둘씩 주워 올린 돌로 쌓인 돌무더기, 즉 돌서낭을 가리키는 이 지역 방언.

시멘트도로는 고갯마루를 넘어 가파른 내리막길을 약 3백 미터쯤 더 내려가서야 끝난다. 다시 오래된 옛길로 들어서자마자 갯버들 군락지가 시작된다. 오래도록 묵혀둔 논이 자연습지로 탈바꿈해서 갯버들 군락지가 된 것이다. 사람 손을 타지 않으면 자연은 원래의 모습을 제 스스로 되찾아간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갯버들 군락지를 지나 3백~4백 미터 계속되던 오솔길이 끝나고 다시 삭막한 시멘트도로가 시작된다. 그래도 제1코스의 종점인 임원리 절터골의 성황목까지 가는 길은 줄곧 계곡의 물길과 나란히 이어진다.

시원한 물소리를 벗 삼아 걷는 길이라, 발걸음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하다. 작고 소박한 성황당 옆에 우뚝 서 있는 성황목은 한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인다. 겉모습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마을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연륜이 느껴진다.

성황목에서 시작되는 제2코스는 '황희 정승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길의 중간에 황희 정승과 관련된 소공대가 있다. 아흔 살 넘도록 장수한 황희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약 60년 동안 무려 여섯 임금을 섬기며 위국애민(爲國愛民)을 실천한 청백리였다. 그리고 소공(召公)은 중국 주나라 때 태평성대를 구가한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인데, 나중에는 왕을 도와 국가를 튼실히 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 인물들의 대명사가 됐다.

황희는 전국적으로 기근이 들어 피해가 극심했던 1423년에 강원도관찰사를 제수받았다. 그는 강원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청에 보관된 곡식을 풀어서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휼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는 자신의 재산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당시 삼척지방은 기근이 특히 심했지만, 백성들에 대한 황희의 각별한 애정과 보살핌 덕택에 굶어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전망 상쾌한 2코스 '황희 정승 만나러 가는 길'

그래서 삼척 주민들은 황희 관찰사가 쉬었던 산중턱에 돌탑을 쌓고, 그 자리를 소공대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 소공대에 남은 소공대비는 우리나라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선정비로 평가된다. 지금도 소공대 자리는 동해바다와 삼척 임원항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전망이 상쾌해서 잠시 쉬어가기에 좋다.

수로부인길에는 의외로 숲길이 많지 않다. 2002년 영동지방을 휩쓴 대규모 산불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날씨가 덥고 햇살이 따가운 날에는 적잖이 고생스럽

다양한 종류의 석순과 종유석이 즐비한 대금굴.

다. 하지만 일망무제의 동해 바다를 굽어보노라면 가슴에 쌓여 있던 시름과 스트레스가 단번에 사라지는 듯한 통쾌함을 맛볼 수 있다.

산수 좋은 삼척까지 간 김에 수로부인길만 걸어보는 게 아쉽거든 대금굴과 준경묘도 들러볼 만하다. 신기면 대이리군립공원(관리소 033-541-7600) 내에 위치한 대금굴은 우리나라 모든 석회동굴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하다. 게다가 2003년에 처음 발견된 덕택에 종유석, 석순, 석회화단구, 베이컨시트, 동굴진주, 휴석 등 2차 생성물의 종류와 크기, 모양도 다양한 데다 보존상태도 거의 완벽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드는 자연의 조각품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며, 모노레일을 탄 채로 동굴 내부 1백40미터 지점까지 진입하는 것도 이채로운 경험이다.

미로면 활기리의 첩첩산중에 위치한 준경묘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의 묘이다. 묘역을 빙 둘러싼 숲에는 한 아름도 훨씬 더 될 만큼 둥치가 굵은 적송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나무들마다 어디 하나도 구부러지거나 뒤틀린 데 없이 자태가 곧고 미끈하다. 어찌나 키가 우뚝한지, 고개를 한껏 젖힌 채 올려다봐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곳 준경묘는 마을에서 30~40분 걸어야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고 외진 곳에 있다. 그래서 언제 찾아가도 청징(淸澄)하고 고즈넉한 풍경만이 눈과 마음을 가득 채운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코스 정보

▶ **옛이야기 속으로** | 8킬로미터, 2시간 30분 소요. 용화리(장호초교)→아칠목재→자랑밭골→사기촌→성황목

▶ **황희 정승을 만나러 가는 길** | 8.5킬로미터, 3시간 소요. 성황목→소공령→소공대→옛 7번국도→상수도 정수장→옥원2리

▶ **바다를 안고 걷다** | 7.5킬로미터, 2시간 30분 소요. 옥원2리→호산뚝방길→월천교→갈령재→옛 동해휴게소→고포마을

전화 | 웰컴투삼척추진협의회(033-575-3210), 삼척시 관광정책과(033-570-3547)

숙박

삼척 새천년도로변에 위치한 팰리스호텔(033-575-7000)과 파라다이스모텔(033-576-0411), 장호항 부근의 장호용화관광랜드모텔(033-573-6321)과 장호펜션(033-575-5111) 등은 바다 전망이 좋은 숙박업소다.

삼척 시내에서는 터미널 부근의 스타모텔(033-574-8277)과 문모텔(033-572-4436)이 비교적 깔끔하다. 그리고 근덕면 용화리의 장미민박(033-572-4140), 원덕읍 임원3리의 로즈밸리펜션(033-573-3539), 고포마을의 푸른바다펜션(010-5377-7897)은 여행자 여권 스탬프가 비치된 숙박업소들이다.

맛집

삼척의 맛집으로는 부일막국수(033-572-1277), 바다횟집(곰치국 · 033-574-3543), 외갓집보리밥(보리쌈밥 · 033-574-7669) 등을 추천할 만하다. 7번국도 궁촌교차로 입구의 금메달휴게소식당(033-574-9442)은 청국장이 맛있고, 장호항의 장호항영기횟집(033-572-3719)은 전복죽과 생선회를 잘한다. 그리고 삼척 시내 외곽의 정라진항과 원덕읍 임원항에는 싱싱한 생선회를 비교적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활어회센터가 들어서 있다.

가는 길

▶ **승용차** | 동해고속국도 동해나들목(7번국도 · 삼척 방면)→용화교차로→용화리

▶ **대중교통** | 서울 구의동의 동서울터미널과 반포동의 강남고속터미널에서 30~60분 간격으로 삼척행 고속버스가 출발한다.

황경신 편집장이 추천하는 〈그림과 눈물〉

그림 앞에서 눈물 흘려본 적 있나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애를 모두 알아야 〈부활〉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재 음악가 베토벤의 음악적 기교를 숙지해야 〈월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학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은 그 깊이를 파고들지 않아도 읽고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예술의 한 장르인 미술을 대할 때는 대부분 "잘 모른다"며 주눅이 드는 걸까.

창간 15년을 맞은 대중문화 월간지 〈페이퍼〉의 편집장이자 작가로도 활동하는 황경신(45) 씨는 "그림과 단절돼버린 것 같은 요즘 시대가 안타깝다"며 그림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추천했다. 미국의 미술사학자 제임스 엘킨스가 지은 〈그림과 눈물〉이다.

황경신 씨는 "그림을 통해 내적 자아를 만나고 삶의 자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의 저자는 그림과 관객의 소통에 주목하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광고를 낸다. 놀랍게도 전화, 편지 등 4백 통이 넘는 답신이 돌아왔다. 답변을 토대로 마크 로스코의 〈예배당의 추상화〉 등 관객들이 접하고 울어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열된다. 황경신 씨는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순간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순간은 변화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것이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그림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안에는 무수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잣대를 빌려 그림에 대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저마다 생각하는 바를 그림 속에서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림' 어렵다 생각하지만 말고 가슴으로 읽으세요

황 편집장은 그림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가치관이 그림과 대중의 간극을 만들었다고 본다. 교과서 속 명료한 작품 해석만이 그림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자세라고 배운 것도, 유명 화가의 대형 전시회 때 작품 보는 시간보다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상황도 그림과 대중이 멀어져간 안타까운 사유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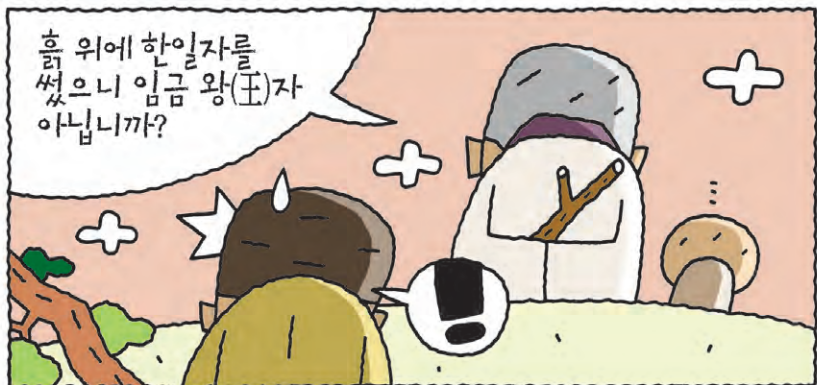
"요즘 사회엔 무언가를 생각할 만한 틈이 없어요. 스마트폰, 트위터처럼 재빠르게 진화하는 삶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하죠. 하지만 거기에서 얻는 소통은 가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직접 대면하는 소통은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보는 것은 내적 자아를 만나고 삶의 자극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누구나 꼭 즐겨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황 편집장은 "그림을 통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예술체험"이라고 덧붙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한 장의 그림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입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그림과 눈물〉 제임스 엘킨스 지음 · 정지인 옮김 / 아트북스 · 1만5천원

교만과 겸손

글과 그림·최영순

대체로 큰 과오의 밑바탕에는 교만이 있다.
–존 러스킨(영국 미술평론가)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한러 수교 20주년 연극으로 만나는 '러시아'

연극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

일시 5월 28일~6월 13일 화·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 7시, 수요일 오후 2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수요일 전석 3만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1~3급 동반 1인까지)
문의 02-580-1300 www.sac.or.kr

예술의전당은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인 안톤 체호프(1860~1904)의 연극 〈벚꽃동산〉을 무대에 올린다. 연출과 무대미술은 러시아 황금 마스크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그리고리 지차트코프스키와 에밀 카펠류시가 각각 맡아 국내 관객들에게 다시금 정통연극의 정수, 체호프 연극의 진수를 보여준다.

고전을 정통적으로 해석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연출과 강렬한 시청각적 무대효과로 버무려내는 지차트코프스키와 카펠류시. 이번 무대에서 이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으로 존재하는 '벚꽃동산'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연극이라는 마법으로 재현해낸다.

체호프의 마지막 작품이자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벚꽃동산〉은 봉건귀족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러시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라네프스카야 부인과 그 주변의 인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는 원로 연기자 신구를 비롯해 탄탄한 연기력을 기반으로 연극계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혜정, 장재호, 이찬영 등이 참여한다. 출연자들은 지난 1월 연출자가 직접 내한해 오디션으로 선발했다.

임일진 미술감독은 "체호프가 탄생한 지 1백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는 〈벚꽃동산〉은 올해 최고의 명품연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공연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러시아 볼코프 국제연극페스티벌에도 초청돼 러시아 관객에게도 선보인다. G

글 · 김지영 기자

완창 판소리 〈박유전제 수궁가〉

일시 5월 29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국립극장은 올해로 26년째 이어지고 있는 완창 판소리 공연 시리즈 중 하나로 이달 말 〈박유전제 수궁가〉를 무대에 올린다. 〈박유전제 수궁가〉는 박유전이 시작해 정응민, 조상현, 박복희 명창에게로 전해져왔다. 이번 무대에서 완창 판소리를 선보이는 박복희 명창은 2006년 남원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소리꾼으로 전남,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유의 통성으로 판을 사로잡을 그의 일품이 기대된다.

피아노 연주회 〈이루마 콘서트〉

일시 6월 4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4만원, A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951-3355 www.nowonart.kr

한국 뉴에이지 피아니즘의 감성미학을 새롭게 탄생시킨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단독 연주회. 2010년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 6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에서 이루마는 '사랑'을 테마로 'It's Your Day', 'MAY Be+Love', 'Chaconne', 'Present', 'Letter', 'Kiss the Rain', 'Love Me' 등을 연주한다. 심플한 선율에 섬세한 감정을 실어나르는 그만의 감성 연주를 맛볼 절호의 기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2010 작품현상 공모전

2010
장애인식개선 콘테스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작품현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분야▐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영상(사진, 동영상)
▌응모자격▐ 자격제한은 없으며 누구나 응모 가능
▌공모주제▐

에세이

- 취업알선, 직업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등 공단의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근로자의 이야기
-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비장애인 동료의 이야기
-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장애인, 꿈을 이룬 장애인의 이야기

인쇄매체디자인

- 공단의 슬로건을 함축
  – 슬로건 :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희망찬 세상
-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
- 공단의 사업을 통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 예 :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기업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 공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ead.or.kr) 참조
  '장애인=휠체어' 라는 상투적인 픽토그램, 동정적·시혜적 내용 지양

영상(사진, 동영상)

- 공단의 슬로건을 함축
  – 슬로건 :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희망찬 세상
-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
- 공단의 사업을 통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 예 :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기업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 공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ead.or.kr) 참조
  동정적·시혜적 내용 지양

▌응모기간▐ 2010년 7월 20일(화) 18시까지(마감시각 이후 접수처리 불가)
▌결과발표▐ 2010년 8월 5일(목)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구분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영상	상장	상금
최우수상	1	1	1	노동부장관상	각 250만원
우수상	1	1	1	공단 이사장상	각 100만원
장려상	5	5	5	공단 이사장상	각 50만원

접수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심사기준, 입상자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공식카페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 단 홈페이지 : http//www.kead.or.k**
▶ **공모전 공식카페 : http//cafe.naver.com/hopeday**

창업이론 › 현장실습 › 성공점포 방문 › 사업계획서 작성 › 자금추천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예정자
교육시간	80시간
교 육 비	국비지원(단 자부담 5만원)
교육지역	전 국
교육신청	온라인 신청(www.sbdc.or.kr → 지원서비스 → 성공창업패키지 클릭!)
문 의 처	소상공인진흥원 (☎ 042-363-7761~2)

■주 최 : 중소기업청 ■주 관 : 소상공인진흥원